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윤선도 詩歌의 山水認識과 형상화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文 順 愛

2010년 8월

윤선도 詩歌의 山水認識과 형상화

指導教授 孫 五 圭

文 順 愛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논문으로 提出함

2010년 6월

文順愛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심사위원장 : _____ (인)

위 원 : _____ (인)

위 원 : _____ (인)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2010년 8월

**A Study on Yoon Seon-Do's Perception of Landscape
and His Poetic Manifestation**

Moon, Sun-Ae
(Leading Professor Sohn, O-Gyu)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2010.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Thesis director, Moon, Sun-Ae Prof.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Date

Majored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국문초록>

윤선도 詩歌의 山水認識과 형상화

文 順 愛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指導教授 孫 五 圭

조선조 사대부였던 고산 윤선도는 당대의 지성인이자 정치가로서 은둔과 유배의 생을 살았다. 그 과정에서 그는 산수가 가진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이를 시로 형상화해 우리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고산 윤선도의 산수인식을 고찰하고 그의 시가에 산수가 어떻게 형상화 되고 있는지 고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윤선도의 생애와 관련하여 윤선도가 산수에 은둔하게 되는 동기를 살펴보고, 출사와 유배 그리고 은둔의 형태로 이어지는 윤선도의 삶속에서 산수라는 공간이 어떤 변모 양상을 보이는지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봤다. 다음으로 윤선도의 시에 산수가 형상화 되는 양상을 고찰했다. 윤선도의 경우 애초에는 산수공간이 단순히 생활을 영위하는 현실적인 공간으로 인식됐지만, 거둬지는 산수은거의 생활을 통해 현실세계의 부조리와 이념의 좌절로 인한 상처를 위로 받고 보상 받는 공간으로 그 의미가 변모하며, 마침내 최고의 미를 가진 이상향으로 인식된다. 윤선도 詩歌에 나타난 산수의 모습은 그의 정치적 환경과 관련을 맺으면서 조금씩 변모된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초기시 <遣懷謠>나 <雨後謠>에

서는 강력한 현실지향욕구가 드러났으며 <漫興>에서는 현실지향적인 의지와 산수은거에 대한 동경이 대립하면서 갈등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그리고 <漁父四時詞>에 이르면 그의 정치적 안정과 더불어 한편으로는 현실지향의식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달관적이고 초연한 삶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사대부였던 윤선도는 경국제민의 이념과 함께 산수은거에 대한 동경을 동시에 갖고 있었다. 이 두 요인은 시인의 내부에서 팽팽하게 대립되고 종종 충돌을 일으키면서, 출사를 해서는 산수를 동경하고, 산수에 은거해서는 출사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럼에도 윤선도는 경국제민의 이념을 포기할 수도 없었고, 산수에의 동경을 멈출 수도 없었다. 이는 두 가지 모두가 윤선도에게는 자아실현의 필수적 요소로 존재했던 까닭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를 통해 윤선도의 산수 친화와 그 이해의 깊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산수가 시 세계 형성의 기본적 요소로서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目 次

<국문초록>

I. 序 論.....	1
1. 研究 目的.....	1
2. 研究史 檢討.....	4
3. 研究 方法.....	5
II. 尹善道の 山水認識.....	7
1. 歸郷과 山水遊覽.....	8
2. 隱遁과 現實超克.....	17
III. 山水와 空間.....	28
1. 隱居의 流配生活.....	30
2. 理念 挫折과 報償.....	35
3. 天人合一의 理想.....	39
IV. 詩歌와 山水 形象化.....	43
1. 遣懷謠와 이념.....	43
2. 漫興과 서정.....	48
3. 漁父四時詞와 서경.....	55
V. 結 論.....	61
참고문헌.....	64

I. 序 論

1. 研究 目的

국문학에서 산수의 중요성은 일찍부터 인식되어 왔다. 산수는 예로부터 국문학 작품, 특히 시가 작품에 가장 널리 사용되었던 제재 중의 하나로서 국문학 속에 형상화된 산수에 대한 이해는 국문학의 정신사적 면모를 살피는데 대단히 중요한 자리에 놓인다. 국문학에서 산수의 중요성은 산수문학과 산수미학의 이론적 체계를 정립하면서 산수문학에서 꾸준한 업적을 쌓아 온 손오규의 다음과 같은 진술에서도 확인된다.

자연은 일찍부터 우리 민족에게 있어 철학적 사색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국문학을 위시한 예술의 대상이요, 소재로 미학적으로도 많은 감동과 정신적 쾌락 및 심적 즐거움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자연은 언제나 경이의 대상이었으며 신비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자연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연을 바라보고 자연을 이용하는 실용적 차원을 넘어 自然과 景物을 매개로 하여 삶의 의미와 내면세계를 관조하고 眺望하는 총체적인 정신생활의 표출이었다고 하겠다.¹⁾

일찍부터 문학의 소재로 다양하게 등장한 산수는 朝鮮中期로 들어서면서 현실 세계와 서서히 구분되어 학문적 성취와 삶을 연관 지으며 조망되기 시작했다. 이는 사대부들에게 있어 산수와 현실이 특별하고도 불가분한 관계에 놓여있던 데서 비롯된다. 주지하다시피 조선시대 사대부 계층은 유교를 이념으로 經國濟民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은 계층이다. 동시에 그들은 산수생활을 통해 대자연의 理法

1) 손오규, 『산수문학연구』,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0, p.16.

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완성 시키고자하는 이상을 동시에 갖고 있었다. 이러한 士大夫들의 이상은 출사의 소명을 다하거나 정치 현실이 여의치 않은 경우 山水隱居의 생활을 하도록 만든 동력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사대부들은 산수는거가 자신의 의지나 뜻에 반한 것이라 할지라도 은거 생활을 적극적으로 받아 들일 수 있었다. 그러나 經國濟民의 이상을 펼치지 못했던 사대부들이 택한 은구의 즐거움 뒤에는 현실에 대한 미련과 좌절에 대한 안타까움이 내재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때에 따라서는 은구의 즐거움보다는 보다는 미련과 좌절에서 오는 슬픔과 절망감을 직접적으로 노래한 시도 종종 발견된다.

朝鮮朝 사대부들은 산수에 현실의 풍경을 담아 두고 있었다. 성기옥은 사대부 문학에 있어 산수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대부 문학, 특히 사대부 시가 문학에 있어 자연의 문제는 단순한 소재론적 차원이 아니다. 사대부들의 자연인식 문제는 그들의 세계인식 문제와 직접 맞닿아 있으며 그들 문학이 지향하고자 하는 미의식의 바탕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를 살펴보는 일과도 직접 통한다.²⁾

孤山 尹善道(1587~1671)의 시가문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산수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다. 고산은 조선조 사대부로서 훌륭한 정치가요, 학자였으며 관직에도 올랐다. 그러나 고산의 정치 생활은 평탄하지 않았다. 오랜 유배생활이 말해주듯 여러차례 정치 현실에서 진퇴를 거듭하며 많은 고초를 겪었던 인물이다. 긴 유배생활 동안 그는 산수와 벗하여 더불어 살았으며 그 생활에서 산수를 대상으로 많은 시작을 남겼다. 그의 이상이나 현실적 고민은 많은 경우 산수를 통해 형상화 되었다. 따라서 고산을 논함에 있어 산수의 중요성은 어느 작가보다도 중요하다. 문영오는 국문학 연구 논고에서 고산에게 있어서 산수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평했다.

2) 성기옥, 『고산시가에 나타난 자연인식의 기본 틀』, 2000, 심미안, p.13.

고산에 있어서의 자연은 풍류의 대상만은 아니었다. 그는 자연을 자아실현의 도의 대상으로 본 것이다. 이 점이 그를 자연시인으로 만든 결정적 단초다. 그가 만약 자연 자체를 풍류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자연에 접근했다면 그의 많은 작품은 한 격이 낮은 차원에 머무르고 말았을 것이다. 따라서 그를 피상적인 자연시인에 그치게 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가 애당초 이점을 인식했던 아니었던 관계없이 그의 시작품이 오늘에 던져준 시적 가치는 자연을 외적으로만 관조한 것을 뛰어 넘어 그 안에 숨어있는 오묘한 哲理를 작품에 깎음으로서 그의 시가 작품의 격을 또 다른 수준으로 향상시켰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고산은 자연을 삶의 실현광장으로 보았다.³⁾

이로 미루어 볼 때 고산의 시는 산수를 떠나서는 논할 수 없을 정도로 산수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으며 산수를 단순히 외형적 제재로만 파악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문학에서 산수인식과 산수미에 대한 이해는 우리 문학의 미의식의 근원을 살피 볼 수 있는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 문학사의 한 봉우리를 차지하면서 16,7세기를 살았던 고산은 특히 산수 인식과 관련해서는 시기에 따라 변모를 거치면서 그 어느 작가보다도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작가이기도 하다. 한 작가에게서 드러나는 세계관과 맞물린 사고체계의 다양성과 복잡한 양상은 개인의 취향이나 성격에 따른 문제가 아니라 일정하게 역사적 맥락을 따라서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산의 산수에 대한 이해는 고산의 문학을 이해하고 고대로부터 현대에 까지 꾸준히 이어져 오는 우리 산수문학의 일면을 고찰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고산 율선도의 산수인식과 시가에 형상화된 산수의 양상을 살핌으로서, 산수와 연관지어진 그의 미의식의 근원을 살피고, 더 나아가 우리 문학과 산수와의 관계를 조명하고 우리 문학의 산수미를 이해하는 단서를 마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문영오, 『국문학연구논고』, 태학사, 1987, P.123.

2. 研究史 檢討

孤山에 대한 연구는 다각적으로 이루어져 어느 누구보다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孤山의 작품만큼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온 경우가 드물다고 할 수 있다. 先行研究를 개관해 보면 趙潤濟의 『朝鮮詩歌史綱』⁴⁾을 기점으로 尹崑崗의 『孤山歌集』⁵⁾에서 본격적인 시작을 이루어 1955년 이재수의 고산연구를 통하여 작가론과 작품론 등의 체계를 갖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⁶⁾

이후 박성익은 저서 『孤山詩歌』를 통하여 자연관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최동원은 道家思想이 고시조에 미친 영향에서 道家 老莊 사상이 고산의 시작 형성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기도 했다.⁷⁾

이들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도남의 ‘강호가도론’을 확대 심화시키면서 강호가도의 미의식을 본질을 진지하게 파고 든 최진원의 논의⁸⁾, 조선조 사대부의 자연인식을 바탕으로 고산의 시를 유미적 형상으로 바라 본 손오규의 논의 등을 들 수 있다.⁹⁾

특히 孤山의 自然觀에 대한 논의는 최진원에 의해 많은 연구가 되어왔다. 그는 「假漁翁-어부사시사의 경우」¹⁰⁾에서 시작하여 「강호가도연구」¹¹⁾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또 「孤山の 自然觀」¹²⁾을 통해서는 ‘煩言과 積謗에 물리고 물린 孤山이 막다른 골목의 궁지에서 산림의 自然을 찾았다’라고 孤山이 自然에 든 동기를 밝히고 ‘자연을 무위로 관념화’ 하여 ‘인간의 현실과 충돌, 모순하지 않는다’고 풀이하였다.

4) 조윤제, 『조선시가가사상』, 박문출판사, 1945.

5) 윤곤강, 『고산가집』, 정음사, 1948.

6) 이재수, 『윤고산 연구』, 학우사, 1955.

7) 최동원, 「도가사상과 도교사상이 국문학에 미친 영향」, 『논문집』10집, 부산대학교, 1969.

8) 최진원, 『국문학과 자연』,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77.

9) 손오규, 『산수문학연구』,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0.

10) 최진원, 「假漁翁-어부사시사의 경우」, 『논문집』5호, 성균관대, 1960.

11) 崔珍源, 「강호가도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1974.

12) 최진원, 「孤山の 自然觀」, 『성대논문집』10집, 1965.

그러므로 無爲는 孤山의 自然觀이다. 그런데 無爲는 老莊의 사상이다. 그러면 老莊의 書를 一切 斥去한 儒者로서의 孤山이 老莊思想의 그것을 自然觀으로 받아 들인다는 것은 一見 矛盾인 것 같기도 하다.(중략) 孤山의 “自然의 觀念化” 속에서의 無爲는 마음의 생각일 뿐이다. 마음의 생각일 뿐인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난 無爲는 構造的 世界는 아니다. 構造的 世界가 아닌 때문에 그것은 “人間”의 현실과는 충돌 모순하지 않는다, 孤山은 그 무엇에도 자기를 맡기지 않았다”¹³⁾

이 논의를 통하여 시대현실 속에서 부침하며 고뇌하던 고산의 인간적 면모가 생생하게 부각되었으며, 고산문학의 미적 특질이 강호가도의 거시적 운곽 속에 떠오르게 되었다.

손오규는 사대부시가에 나타난 자연인식을 세 개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중 고산에 대해서는 자연을 唯美的 형상으로 인식하여 자연의미를 발견한 대표적 작가로 분류하고 있다.¹⁴⁾

이상으로 선행 연구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孤山에 대한 연구가 이처럼 다각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진 이유는 『孤山遺稿』가 현전하고 있고 무엇보다 빼어난 그의 문학성 때문으로 짐작된다. 고산의 시조 작품의 위상을 감안할 때 현재 이루어졌던 연구 성과들이 깊이를 더함은 물론이고 앞으로는 다른 여러 측면에서 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3. 研究 方法

현재 전하는 고산의 작품으로는 문집 『고산유고(孤山遺稿)』에 시조 75수와 한시문이 전한다. 문집으로 『고산선생유고(孤山先生遺稿)』가 있고, 친필로 된 가첩으로 <山中新曲>, <金鎖洞集古>가 전한다. 윤선도는 특히 국문시조 분야에서

13) 최진원, 「孤山의 自然觀」, 『성균관대학교논문집』10집, 1965, p.78.

14) 손오규, 앞의 책.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조선시대의 대표적 문인으로 알려져 있다.

고산의 산수인식을 고찰함에 있어 단지 그의 문학 작품에 나타나는 산수경물을 대상으로 하여 작품의 성격을 조망하는 것은 편협된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의 많은 연구들이, 윤선도 시조에 나타나는 산수가 현실 내지 사회의식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지적해왔듯이, 고산의 산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산이 구체적으로 산수와 어떻게 관련을 맺고 살았는지에 대한 일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산수인식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야말로 한 작가의 산수인식을 총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앞서도 말했듯이 하나의 대상물에 대한 인식은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작가가 처한 상황과 시기에 따라 변모되는 까닭이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통해 고산의 산수 인식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사대부였던 윤선도의 생애와 연관해서 윤선도가 산수와 접하게 되는 동기를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산수공간에 대한 인식에 어떤 변모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인식의 변모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고산의 시조를 통해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를 기점으로 하여 전기적인 입장에서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한 작가의 산수에 대한 인식이 어느 특정한 시점을 기점으로 일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면면한 세월의 흐름 속에서 본인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할 만큼 서서히 지난한 과정을 통해 변화해 나간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인식의 변화에는 변화를 주도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하며 고산의 경우는 은둔과 은거라는 비교적 밖으로 잘 드러나는 요소가 나타나고 있는 까닭이다. 다음으로 이 배경연구를 기반으로 고산의 시에 형상화된 산수를, 작품 분석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II. 尹善道の 山水認識

孤山 윤선도의 생애나 그의 문학을 논 할 때, 그와 산수와의 관계는 가장 핵심이 되어왔다. 산수는 거의 생활속에서 산수를 소재로 한 시를 누구보다도 많이 남긴 고산의 문학을 연구함에 있어 이 문제를 구명하는 것은 인간 윤선도를 파악하는 핵심작업이 될 것이며 그의 문학세계를 이해하는 첩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윤선도가 살았던 시기는 성리학이 지배적인 이념이었다. 따라서 성리학은 고산 산수관의 사상적 배경으로서 자리한다.

경국제민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성리학은 산수를 바라봄에 있어 이상적인 사상체계를 갖고 있는 학문이다. 이전과는 달리 조선조 성리학에서 바라 본 산수는 단순히 위안을 얻는 공간으로 머물지 않았다. 성리학에서의 산수는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고 진정한 자아를 실현시키고자하는 또 다른 공간이었다.

성리학은 산수와 인간이 합일을 할 수 있는 天人合一이나 物我一體觀을 지향한다. 이들은 인간의 심성에 대해 깊이 탐구하고 절의를 숭상했으며 주자성리학을 바탕으로 가치관을 형성하였다. 또한 이러한 가치관이 손상을 받았을 때 산수에 문혀 문학을 통한 당시 심정을 표현하고 성현의 학문 탐구에 뜻을 두었다. 즉 사림파는 산수와 사물에 대한 관찰로 거기서 찾아진 理를 인간 생활의 윤리적 달성에 원용하고자 했다. 산수나 인생을 단순히 관찰하는데 머물지 않고 인생의 인식론적 해명을 구하는 데서 그들의 학문과 문학은 산수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조선조 사대부들은 벼슬길에 나아가 임무를 다한 다음에는 산수간에 은거하거나 산수를 유람하면서 우주적 진리와 大自然의 理法에서 참다운 즐거움을 찾는 것을 당연시 했다. 이는 사대부 시가를 논함에 있어 산수인식이 중요해 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손오규는 이러한 성리학 발전이 우리의 산수문학에서 새로운 미의 경지를 개척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고 봤다.

조선조 士林의 性理學은 인간중심의 精神主義 哲學으로 자연 생명질서의 본질과 천지운행의 근원을 그 앞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것은 그들의 ‘智慧로서의 앎’, ‘窮極의 진리’, 또는 ‘道’를 추구하는 학문정신에 의하여 천지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새롭게 발전 시켰다. 그 결과 大自然과의 정신적 融化를 통하여 山水隱居를 가치실현과 自我省察, 實踐躬行을 통한 修養의 생활로 인식하고 大自然의 理法을 表象하는 理念美의 세계를 지향하였다. 이는 분명 새로운 山水美의 詩境에 대한 개척이다.¹⁵⁾

따라서 이러한 철학적 배경속에서 선택되어지는 조선조 사대부들의 산수은거는 고행적인 隱遁의 태도이거나 쾌락적, 유희적인 태도가 아닌, 산수를 통하여 心性을 陶冶하는 행위였다. 일찍이 최진원이 ‘이념(경국제민)과 동경(귀자연)의 세계는 조선조 사대부들에 있어서는 결코 이율배반적 모순이 아닌 것이다.’¹⁶⁾ 라고 진술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조선조 사대부들은 벼슬길에 나아가 임무를 다한 다음에는 산수간에 隱居하여 우주적 진리와 大自然의 理法에서 참다운 즐거움을 찾는 것을 당연시 했다. 사대부였던 고산 역시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본장에서는 고산이 이러한 성리학의 사상적 배경속에서 산수관을 지니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고산의 산수인식을 살펴 보고자 한다.

1. 歸鄉과 山水遊覽

고산의 작품을 읽어 보면, 산수를 소재로 하거나, 산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거나, 산수경물을 통해 어떤 교훈적 의미를 발견해 내는 등 산수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고산의 삶 역시도 출사보다는 20여 년에 가까운 긴 유배생활과 산수에 은거했던 생활이 더 길어 고산과 산수와의 관계는 가히 숙명적으로까지 여겨

15) 손오규, 『산수미학답구』,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6, p.33.

16) 최진원, 『국문학과 자연』,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77, pp.41~42.

진다.

고산은 漢城에서 출생했지만 성장하고 자랐던 근거지는 海南이었다. 孤山이 8세 때 입양된 백부의 집은 해남 연동으로, 동북 편으로 높이 치솟은 덕음산 아래 있었다. 그 곳은 덕음산으로 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온갖 수목들이 울창하고, 기름진 들이 펼쳐져 있었다. 마을 밖 머지않은 곳에 두륜산이 있고 굽이치는 계곡 물을 거슬러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종사가 있었다. 이렇듯 孤山의 청소년기의 성장배경이 된 곳은 주위의 환경이 한가롭고 아름다운 산수의 여건이 두루 갖추어진 곳이었다. 다정다감했던 孤山은 이곳에서 천부의 詩才와 넘치는 정감을 갖고 닦으며 산수에 대한 美感을 가다듬을 수가 있었다.¹⁷⁾

11세 (1597, 宣祖 30)에 이미 산사에 들어가 수학하였으며 14세 (1600, 宣祖 33) 때부터는 漢詩 작품을 남기기 시작했다. 이어 17세 (1603, 宣祖 36)부터 進士 初試를 비롯하여 과거에 계속 합격하게 된다. 고산의 청년시절은 평탄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 다음의 시를 보면 청년시절부터 산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寒壁領仙境	한벽루는 선경을 지니어
爲樓淸且豪	누의 됴됨이 맑고도 호장하네
能令忘寵辱	은총과 오욕을 잊을 수 있게 하고
可以渾山毛	산과 털을 하나로 할 수 있네
長瀨聲容好	긴 여울은 소리와 모습이 좋고
群峯氣象高	뭇봉우리는 기상이 드높다네
沈病難濟勝	고질병을 고쳐 낫게 하기 어렵지만
携賞豈言勞	손잡고 완상하니 어찌 수고롭다 하리오 ¹⁸⁾

<代嚴君次韻姜正言大晉 1수>

17) 박요순, 『한국고전문학 신자료 연구』, 한남대학교출판부, 1992.

18) 이형대 외, 『국역 고산유고』, 소명출판, 2004, pp.77~88. 이후 인용되는 고산의 한시는 모두 이 책을 참조하였음.

인용한 작품은 <代嚴君次韻姜正言大晉>의 6수 중 첫 수다. 1614년(광해군 6년) 고산의 나이 28세에 지은 것으로 한벽루의 경치를 노래하고 있다. 은거의 경험도, 유배의 경험도 없는 시절인데 맑고 아름다운 한벽루의 선경이 인간사의 모든 영욕을 잊게 해 준다고 노래하고 있다. ‘긴 여율은 소리와 모습이 좋고/ 못봉 우리의 기상이 드높다’고 표현한데서 산수를 애정 어린 눈으로 관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산은 한벽루에서 바라 본 산수의 아름다움과 감흥을 이 한 작품으로 아쉬워 계속해서 <次寒壁樓壁上朱文節韻>을 짓기도 한다. 이 시를 통해 고산이 일찍부터 산수경물의 아름다움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고산이 성리학자라는 점과 연관 지어 볼 때 이후 고산이 어떤 삶을 살았던 산수은거는 예정된 일이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렇다면 고산이 귀거래를 감행 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무엇인가? 고산의 문학과 자연을 논하는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그것을 혼란했던 정치적 상황¹⁹⁾과 병자호란²⁰⁾에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고산의 일생을 다시 한 번 살펴보자.²¹⁾

청년기의 평탄한 시절은 그의 나이 30세 (1616, 光海 8)되던 해에 이르러서는 인생의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된다. 그 당시는 光海君의 정치가 어지러워 예조판서 李爾瞻이 자기의 뜻에 맞도록 모든 일을 종용했고 남을 속이고 진실을 가리곤 했다. 이에 孤山은 그 유명한 <丙辰疏>를 올리기에 이른 것이다. 이로 인해 承政院과 三司와 館學에서는 李爾瞻의 뜻을 받들어 孤山이 어진 이들을 모함하고 역적 金悌男의 옥사를 뒤집으려 한다면서 극론을 폈다. 그리하여 孤山은 1616년 (光海 8) 함경도 경원으로 유배 가게 되었고 부친 唯幾도 관찰사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경원은 우리나라 북쪽 끝의 변방에 있는 바닷가로서 서울서는 2천 여리나 떨어진 곳이다. 풍속과 기후가 다를 뿐만 아니라 좁쌀 밥에 나물국이나 먹어야 했다. 유배 1년 후에는 경상도 기장으로 이배되는데 긴 유배생활 동안 孤山은 오직 독서를 하거나 언덕이나 골짜기를 소요하면서 속마음을 노래하여 무려 43 수의 한시와 그 외의 시조들을 창작하였다.

19) 최진원, 「孤山의 自然觀」, 『성균관대학교논문집』10집, 1965, p.65.

20) 이재수, 『尹孤山 研究』, 학우사, 1955, p.35.

21) 이에 참고로 삼은 자료는 張德順의 『韓國 古典文學의 理解』, 元容文의 『孤山 尹善道の 詩歌研究』 등이다.

윤선도가 37세 (1623, 仁祖 1) 되던 해 3월 仁祖反正이 일어나자 그는 8년 간의 유배에서 풀려나게 되었고 4월에는 義禁府都事로 부름을 받았다. 이는 처음 갖는 출사의 계기였으나 벼슬을 사직하고 海南으로 귀향하게 된다. 그로부터 약 5년 간 나라에서 몇 차례의 부름이 있었으나 모두 사양하고 산수에 은거하며 독서에 정진했다.

42세 (1628, 仁祖 6)되던 해 봄에 대략 5년 간의 海南 생활을 마치고 상경한 孤山은 別試初試에 나아가 장원급제하고 이어서 3월에 鳳林大君과 麟坪大君의 사부가 되었다. 이로부터 그는 본격적인 벼슬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후 약 7년 간은 요직을 거치면서 유가의 소망을 이루고 정치적 경륜을 쌓을 수 있었던 시기였다. 이후 46세 (1632, 仁祖 10) 되던 해 11월에 병으로 모든 관직을 사임하고 海南으로 돌아갔다.

48세 되던 해(1634, 仁祖 12)에는 다시 縣監으로 부임하게 되었지만 계속되는 질서와 비방으로 고산은 결국 그해 겨울에 관직을 버리고 귀향한다. 출사를 단념하고 산수에 은거하고자 하던 심정은 이로부터 더욱 깊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50세 (1636, 仁祖, 14) 되던 해 12월에 丙子胡亂이 일어났다. 亂이 일어나자 남달리 애국의 정이 투철한 그는 의병을 이끌고 배로 江華道 가까이 갔다. 그러나 왕자들은 이미 붙잡히고 仁祖는 치욕적인 화의를 맺고 말았다는 소식을 듣고 세상을 개탄하며 평생을 제주도에 묻혀 살 것을 결심한 끝에, 뱃머리를 돌려 남쪽으로 향하였다. 남하 하다가 발견한 수려한 공간이 곧 뒷날 <漁父四時詞>의 배경이 된 보길도이다. 孤山은 여기가 살만한 곳이라 판단하고 여기를 부용동이라 이름하고 격자봉 밑에 집을 지어 낙서재라는 편액을 달고는 생애를 마칠 곳으로 삼았다. 따라서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산수와 친화되면서, 산수와 더불어 생활했던 당시의 생활모습과 심경이 많은 한시 작품들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²²⁾

이렇게 산수에 도취되어 유유자적하던 그에게 大同察訪이 제수되었으나 그는 병을 일컬어 부임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일을 기회로 그를 몹시 미워하는 이들은 끊임없이 그를 모함하였는데 결국 병자호란 때 임금을 배알하지 않은 것이

22) 이에 해당하는 漢詩 작품으로는 <郎吟溪>, <約舟>, <格紫峯>, <薇山>, <小陰屏> 등이 있다.

문제가 되어 1638년 (仁祖 16, 52세) 경상도 盈德으로 귀양 가게 된다. 이듬해 사면 된 고산은 집안일을 아들 仁美에게 맡기고 자신은 이웃에 있는 산중을 찾아가 가까운 거리의 水晶洞과 金鎖洞, 聞簫洞 등을 발견하고 산수를 벗하는 본격적인 10여 년 간의 은둔생활에 들어갔다. 이 무렵 그는 자신의 생활을 한시로 노래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시조로 노래하는데도 큰 열정을 보였다.²³⁾

특히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그의 시조 작품 속에 산수에 대한 친화와 애정이 더욱 짙게 드러나는데 그 대표적인 작품이 孤山이 56세(1642, 仁祖 20)때 盈德의 귀양에서 풀려 은거지로 처음 찾은 곳인 水晶洞에서의 생활을 노래한 <山中漫新>과 <山中續新曲>이다.

63세(1649, 인조27, 己丑) 되던 해 여름에는 인조가 세상을 떠나고 세자로 있던 봉림대군 곧 효종(孝宗)이 즉위하였다. 효종에게 고산은 사부였다. 따라서 고산에게는 정치가로서의 재 등용의 기회가 오고 있었다. 그러나 잠시 출사의 길에 올랐으나 1651년 효종 2년, 고산의 나이 65세 때 다시 은둔을 결심하고 부용동(芙蓉洞)으로 돌아가 그의 대표작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40수를 짓게 된다. 이후 예송논쟁과 관련, 또 한 번 8년간의 귀향살이를 한 뒤 부용동으로 돌아와 85세를 일기로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하기에 이른다.

실로 유배와 은둔으로 점철 된 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병자호란을 귀향의 직접적인 이유로 보는 데는 고산이 이를 밝힌 바가 있는 까닭이다. 병자호란 후 출사를 사양하는 이유가 고산유고에 전한다.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은 까닭은 어찌서이겠습니까? 저는 타고난 성질이 어리석고 천하여 세상살이가 뜻과 같지 않았으며 한번 벼슬한 뒤 부터는 내직에 있으면 번거로운 일들이고, 왜직에 나가면 비방이 쌓여 서로가 일컫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바 아니나 오히려 뜻을 고칠 수 없으니 이것은 주임이 이른바 불능자입니다.”

23) 이 당시 지은 시조로 56세 (1642, 仁祖 20)에 <漫興> 6수, <朝霧謠> 1수, <夏雨謠> 2수, <日募謠> 1수, <夜深謠> 1수, <饑歲歎> 1수, <五友歌> 6수 등 <山中新曲> 18수를 짓고 59세 (1645, 仁祖 23)에 <秋夜操> 1수, <春嘯吟> 1수 등 <山中續新曲> 2수 및 그 밖에 <古琴詠> 1수, <贈伴琴> 1수, <初筵曲> 2수, <罷宴曲> 2수 등을 지었다.

다.(중략) 저는 성산에서 돌아온 뒤부터 벼슬길에 다시 뜻을 두지 않고, 일구일학으로써 몸 들 곳을 삼으며 밭고랑에서 편안하고 한가하게 지내며 강과 바다로 방황하고 싶은 뜻이 있었습니다.(중략) 이 몸의 평생 성벽이 본디부터 산수에 있었으며 들어갔던 섬에는 천석이 절승하여 귀신이 깎아 세운 듯 하니 인간세상의 이목으로는 일찍이 듣도 보도 못한 바였습니다.”²⁴⁾

그러나 고산은 병자호란이 있기 훨씬 이전부터 산수로 돌아가 은거생활을 실현하고 싶어했던 사실이 작품을 통해 드러난다.

人間軒冕斷無希	인간의 세상 높은 벼슬 단연코 바란 일 없고
惟願江湖得早歸	오직 원하기는 강호에 일찍 돌아감이라
已向孤山管小屋	이미 고산에 작은 집 지었으니
何年實着芝 荷依	어느 해에 실로 연잎 옷 입으려나 ²⁵⁾

<次韻謙甫叔父詠懷 2수>

위 시는 고산이 30세가 되던 해에 지은 시이다. 시를 지은 해가 병진소를 올린 시기와 일치하고 있는데, ‘오직 원하기는 강호에 일찍 돌아감이라’ 하여 귀거래의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고산은 일찍부터 귀거래를 소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 본 것들을 종합하면 고산은 일찍부터 산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유배를 겪기 이전부터 귀거래를 소망하고 있었는데 정치적 소용돌이와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귀거래의 의지를 재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필자는 고산이 귀향을 결정하게 된 외부적인 요인이 병자호란이었다면 산수애호의 정신과 산수은거에 대한 동경이 그 내부적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귀향 후 산수를 유람하며 지은 시에서도 산수 애호의 정신과 산수에 은거하는 생활에서 오는 흥취가 그대로 전해지고 있어 이 사실을 뒷받침한다.

24) 원용문, 『윤선도 문학연구』, 도서출판 국학자료원, 1989, p.164에서 재인용하였음.

25) 이형대 외, 『국역 고산유고』, 소명출판, 2004, p.85.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피흘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흐라
말슴도 우움도 아녀도 몰내 묘하 흐노라 <漫興 3>

비록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강행하게 된 귀향이었지만 위 시는 산수애호 정신의 극치를 보여준다. ‘잔 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 본다’고 한 초장에서는 진실로 산수에 은거하여 산수의 즐거움을 즐길 줄 아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된다. 진실로 산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홀로 앉아’ 그리고 ‘그리운 님’ 보다 더 반가워할 수는 없을 것이다. 모든 세속사를 잊고 산수와 하나가 되는 생활의 풍류가 멋스럽게 묻어나고 있다.

취(醉)하야 누얼다가 여흘 아래 느리려다
비 띵여라 비 띵여라
락홍(落紅)이 흘러오니 도원(桃源)이 갓갓도다
지국총(至芻菴) 지국총(至芻菴) 어스와 (於思臥)
인세(紅塵) 흥진(紅塵)이 언매나 ㄴ렷느니 <漁父四時詞 春 8>

자신이 살고 있는 보길도를 도연명의 무릉도원에 비유하고 있다. 이로 볼 때 고산에게 산수는 이상세계인 것이다. 속된 일을 떠나 멋스럽게 산수은거를 즐기며 살아가는 모습에 세속의 티끌은 없어 보인다.

마람넙희 바람 나니 봉창(篷窓)이 서늘코야
돌 드라라 돌 드라라
너름 바람 덩홀소냐 가는 대로 비 시겨라
지국총(至芻菴) 지국총(至芻菴) 어스와 (於思臥)
북포(北浦) 남강(南江)이 어디 아니 묘홀리니 <漁父四時詞 夏 3>

가어웅으로서 은자의 생활태도를 분명히 보여주는 시이다. 고산의 의도는 고기

잡이가 아니라 뱃놀이에 있다. ‘가는 대로 비 시겨라’, ‘어디 아니 뎡홀리니’에는 유람의 뜻이 함축되어 있다. 진정한 어부였다면 바람 앞에서 고기잡이만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마름잎’, ‘여름바람’, ‘북포남강’ 등 속세와는 거리가 먼 선적인 경치가 배경으로 등장하는데 이러한 상황 아래서 산수를 유람 하겠다는 의지가 표명되고 있다.

그런데 유별나게 보일 정도로 극진한 산수에 대한 사랑과 산수은거에 대한 동경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다수의 고산 시조에는 끊임없이 출사에 대한 미련이 보여진다. 출사와 유배로 점철된 고산의 생애 역시 고산이 출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하지만 시조에서는 산수를 극진히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은거의 즐거움 등과 함께 출사에 대한 미련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

슈국(水國)의 ㄱ을이 드니 고기마다 슬져일다

달 드리라 달 드리라

만경당과(萬頃蒼波)의 슬크지 용여호자

지국총(至芻蔥) 지국총(至芻蔥) 어스와 (於思臥)

인간(人間)을 도라보니 머도록 더욱조타

<漁父四時詞 秋 2>

이 시조는 산수에 은거해 있으면서도 출사에 대한 미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시다. 풍요로운 산수의 품에서 흥에 겨워 노래하던 화자는 흥이 최고조에 이르는 가 싶더니 종장에 이르면 갑자기 인간세상을 돌아본다. 물아일체의 경지로 승화 되려는 순간, 느닷없이 인간세상에 대한 관심이 드러나고 만다. 이는 고산의 잠재의식 속에 현실에 대한 관심이 남아있는 까닭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사실 고산의 작품을 읽다보면 어디에서나 산수가 주는 즐거움과, 산수와 합일된 즐거움이 구가되고 있지만 고산이 표출하는 이 기쁨이 어딘가 공소한 느낌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쁨이 가득한 자족의 공간이기 보다는 일시적이며 무언가와 비교되는 대립적 상황에서만이 가능한 상대적인 기쁨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고산이 조선조 사대부였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성리학은 경국제민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학문이다. 고산은 성리학자였다. 따라서 경국제민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고산으로선 자아실현의 한 장이다. 최진원은 이점을 들어 고산이 산수에 처하여 있으면서도 관심은 현실에 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甫吉島の 생활이 隱淪이 아님을 밝혀 不奔問이니 不仕니 하는 攻撃으로부터 자기를 옹호키 위한 데에 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 보다는 그는 士大夫로서 儒者로서 본래 理念을 저 바릴 수 없는 때문이다. 理念을 저 바린다는 것은 곧 士大夫로서의 儒者로서의 存在意義를 喪失하고 마는 것이다. 孤山에 있어서는 그것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는 몸은 자연에 處하여 있으면서도 理念은 「江湖에서 朝政의 闕失을 들으면 반드시 寢食이 불안하였다」와 같이 항상 「인간」에 가 있다.²⁶⁾

고산은 사대부로서 경국제민의 이상의 실현과 산수은거, 이 두 가지 모두를 포기할 수 없었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현실사회에서 경국제민의 이상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던 고산의 삶은 산수공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학문적 완성을 위해 산수에 은거하거나, 또는 致仕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산수에서의 낙을 즐길 수 있었던 致仕客과는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게 된다.

손오규 역시 고산이 은거생활에 들게 된 동기, 즉 정치적 불운에 주목하면서 고산에게 있어 산수는 현실세계에서 좌절된 이념에서 오는 갈등을 카타르시스라고 그에 대해 심리적 보상을 얻는 공간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종장의 「머도록 더욱조타」의 ‘머도록’은 심정적 거리이다. 자기가 처한 자연에 만족한다면 구태여 그것을 끄집어 내어 멀리할 필요가 없다. 고산에게 현실세계란 정치적 불운으로 인한 좌절과 절망감으로 심리적 갈등만을 느끼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떨쳐 버리려 해도 떨쳐지니 앓는 생각이 고기잡이 하는 순간만은 잊

26) 최진원, 「孤山の 自然觀」, 『성균관대학교논문집』10집, 1965, p.76.

있던 것이나, 문득 인간세상으로부터 멀어졌구나 하고 그 심정적 거리를 깨닫는 순간 고기잡이의 흥은 산산조각이 나고 더 이상 고기를 잡을 의욕도 없거니와 즐거움도 달아나 버리고 현실적 압박이 다시 뒤엎어 누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고산은 자연에 파묻히어 현실과 단절을 시도하고 자신의 불만과 갈등을 어용의 생활에 기탁하여 자기 카타르시스를 통하여 정신적 위안과 심리적 補償을 얻고자 하였다.²⁷⁾

즉 경국제민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했지만 그 뜻을 제대로 펼 수 없었던 고산은 산수인식에 있어서도 다른 이들과는 다른 독특한 모습을 내재하게 되는데 다음에서 이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 隱遁과 現實超克

사대부들의 산수관은 성리학을 사상적 배경으로 하여 형성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성리학의 사상적 배경 위에 개인들의 면모가 더해지면서 다양한 양상을 드러낸다. 즉 산수은거의 동기나 은거의 방식, 시대적 상황 등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러한 차이는 산수경물을 묘사함에 있어서도 차별성을 갖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특히 朝鮮朝 宦界의 ‘江湖로 돌아가자’라는 구호는 山水愛好思想의 발로라기보다는 종종 험난한 시대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선택되어졌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다. 산수은거는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생명에 대한 위기와 절박한 상황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관념적 은거지로 작용하기도 했다. 특히 朝鮮朝 정치·사회상의 특이성에서 빚어진 ‘黨爭下의 明哲保身’과 ‘致仕客의 閑適’이 곧잘 산수은거를 부채질하는 큰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쟁 하의 보신책으로서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타의에 의한 은거이

27) 손오규, 앞의 책, p410.

거나, 致仕客의 한적 같은 자의에 의한 은거나, 어떤 경우든 앞서도 살펴봤듯이 은거는 현상적으로는 그들의 기본적 이념과는 모순되는 측면이 있고 이 점은 조선조 사대부 시가에서 자연 인식의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儒士들이 이러한 모순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극복하는가는 결국 산수관 형성의 크나 큰 관건이 된다. 그 극복양상은 그들의 이념에 순응하면서 은거의 합리성을 찾거나 또는 이념을 이탈하는 양상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산수에 대한 인식은 곧 조선조 사대부들의 현실관, 세계관, 미의식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게 되고 산수에 대한 인식 양상에 따라 사대부들의 산수시가 전개는 다양한 양상을 띠며 나타나게 된다.

산수문학을 체계화한 손오규는 조선조 사대부 시가의 산수인식 양상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다. 첫째는 퇴계로 대표되는 이념의 표상으로서의 산수 인식이고 두 번째는 농암 이현보로 대표되는 자족의 공간으로서의 산수 인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산으로 대표되는 유미적 형상으로서의 산수 인식이 그것이다.²⁸⁾

그렇다면 고산과 이들을 구별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그 질문에 대한 답에 앞서 우선 손오규의 분류에 기준해 퇴계와 농암의 산수인식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산수은거를 실현했던 퇴계는 이상적인 문예미를 ‘溫柔敦厚’에서 찾았다. 온유둔후라는 품격은 대상을 향해 적극적으로 다가서기 보다는 내향적으로 반성이나 반추라는 여과의 과정을 거쳐 의경을 나타내려는 태도다. 그가 시에서 추구하는 바는 두 가지라 할 수 있다. 즉 시를 짓기 이전에 작자의 성정을 바르게 함이 하나이고 여기서 비롯되어 읽는 자로 하여금 理와 敬에 기반한 온유둔후한 데로 나아가게 함이 하나이다.²⁹⁾ 즉 퇴계의 산수시는 표면적으로는 산수의 서경과 이를 보는 자신의 감흥을 노래하는 듯이 보이지만 그 이면의 표현하고자 하는 바는 산수 경물에 이미 존재하는 理를 밝혀 자연의 理法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도산시에 등장하는 산수는 풍경이 아니다. 그들이 나타낸 산수는 순수

28) 손오규, 앞의 책, pp.384~414.

29) 장도규, 「퇴계 이황의 시인식과 달관」, 『한국사상과 문화』제44집, 한국사상문화연구원, 2008. p.42.

한 도학적 이념의 공간인 것이다. 깨끗하고 순수한 산수에서 자신들은 깨끗한 심성을 지니고 유교적 道를 닦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작품에 등장하는 산수는 단순한 산수가 아니라 자신들의 순수한 이념의 道를 담고 있는 곳으로 다분히 이념적인 공간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황의 <도산십이곡>은 도학적 근본주의의 기본원칙을 견지하면서 좀 더 깊은 철학적 심미적 의미를 부여한 작품으로 볼 수 있다.³⁰⁾ 앞서 손오규가 이황의 산수인식을 ‘이념의 표상’으로 구분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이황의 산수문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손오규에 따르면 이황의 산수시는 관념적인 理想世界를 상징하지 않고 실재하는 산수를 아름다움의 대상으로 인식했다고 하고, 동시에 산수미를 가치로 인식하기에 산수의미를 오직 정신의 세계에서 묘사하여 形寫를 억제하고 정신적 가치를 드러낸다고 하였다.³¹⁾ 또 <도산십이곡>에서 전 육곡 言志의 산수에 묘사된, 자연지성과 본연지성이 일치된 퇴계의 주체적 산수세계는 조선조 사람들의 산수 중에서 가장 독창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

幽瀾이 在谷하니 自然이 듣디도해
 白雲이 在山하니 自然이 보디도해
 이등에 彼美一人을 더욱넋디 못흐애 <陶山十二曲 前 4곡>

이 시조의 초장과 중장은 자연지성을 노래한 것인데 幽瀾이 재속하는 것이나 백운이 존재함은 모두가 각자가 있어야 할 곳, 즉 각자가 본 자리를 지킴, 다시 말해서 명득기소하는 무의적 幽瀾이며 백운인 것이다. 이것은 幽瀾과 백운의 본성이다. 이는 퇴계가 자연과의 합일에서 각각의 사물에 내재하는 이치를 궁구함으로써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중장은 퇴계 자신의 본연지성을 노래한 것이다. 즉 자연은 각자의 본자리를 지켜 자연지성에 일치하여 융화의 극치를 보인다.³²⁾

30) 김홍규, 「16.17세기 강호시조의 변모와 전가시조의 형성」, 『어문논집』35, 고려대학교국어국문학회, 1996. p. 223.

31) 손오규, 앞의 책, pp.206~207.

32) 손오규, 위의 책, p.241.

따라서 시에서 우러러 나오는 흥도 이치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 흥은 변하는 산수경물의 변화를 따라 발견하는 理가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서 오는 흥인 까닭이다

<도산십이곡>은 퇴계가 도학자로서, 산수속에서 道를 터득한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다. 세상의 구속에서 벗어나 悠悠自適하는 즐거움을 찾으면서도 玩世不恭에 빠지지 않고 溫柔敦厚한 경지를 살리고 있다.

天雲臺 도라드러 玩樂齊簫洒현디
萬卷生涯로 樂事 | 無窮호애라
이 둥에 往來風流를 닐어 무슴홀고 <陶山十二曲 後 1곡>

성현들이 남긴 많은 책을 읽는 즐거움이야 말로 무궁하니 이 풍류를 ‘말해 무얼하리오’라고 감탄하고 있다. 산수에 은거하여 학문을 궁구하고 자연의 이법을 깨닫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 담백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퇴계의 시는 이념을 표상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느껴지는 서정적인 흥의 세계를 노래하고 있다.

퇴계가 학문의 성취를 위해 도산에 은거했다면 농암은 致仕에 의해 산수에 은거하게 되면서 퇴계와는 또 다른 산수인식의 양상을 보여준다. 농암과 같은 致仕객이나 송암과 같은 山林處士들은 산수유락의 樂을 즐기는 것에 목적이 있어 탈속의 심경에서 산수를 인식하고 있다.

龔巖애 올라보니 老眼이 猶明이로다.
人事 | 變한들 山川이쥌 가질가
巖前에 某水某丘도 어제 본 듯호애라. <龔巖歌>

고향으로 돌아오니 늙은 눈이 더 밝아진 것 같고, 어제 봤던 듯 그대로인 듯한 산천. 힘들었던 정치현실을 떠나 오랜만에 정다운 고향산천을 찾는 귀거래의 감격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草草行裝白首郎 추레한 행장의 백발노인
 秋風匹馬嶺途長 가을바람에 필마로 고갯길이 먼 길도 하구나
 莫言林下稀相見 숲 아래 서로 보기 드물다 말하지 마오
 落葉歸根自是常 낙엽이 뿌리로 돌아감은 몇몇한 일일지니³³⁾ <踰竹嶺>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낙엽이 떨어져 뿌리로 돌아가는 산수의 理致와 같다고 말하고 있다. 귀거래의 당위성을 산수에서 찾은 셈이다. 돌아가는 노인의 머리는 하얗게 쉬고 고향에 당도하려면 멀었는데 행장은 초라하기만 하다. 그러면서도 농암은 몇몇하다고 말하고 있다. 걸모습과는 달리 마음은 은근한 기쁨으로 충만해 있는 것이다. 기다리고 기다려왔던 공간으로의 회동은 기쁨 수 밖에 없는 것이다.

龔巖이 개작한 어부사의 의경도 여기서 예외는 아니다. 龔巖은 여생의 즐거움을 산수생활 속에 찾으려 뱃놀이를 즐기며 술과 더불어 벗과 함께 어부생활의 즐거움을 동경했던 것이다.

이등에 시름 업스니 漁父의 생애이로다
 一葉片舟를 萬頃波에 띄워두고
 人世를 다 니젯거니 날가는 주를 알라 <漁父短歌>

산수에 묻힌 자신의 모습이 漁父로 표현된다. 세상사 모든 일을 잊고 시름 또한 없다. 산수와의 괴리도 없으며 못 다 이룬 욕망이나 회한도 없다. 이러한 농암의 심정은 어부사를 개작함에 이르러 산수에 더욱 접근하고 모든 것을 잊고 산수에 은거하는 즐거움에 이르게 된다. 농암과 같은 사대부에게 귀거래는 오랜 꿈이요 이상세계의 실현인 셈이다.

손오규는 이현보가 인식하는 산수를 자족의 공간으로 명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33) 정영문, 「농암의 문학에 나타난 자연관」, 『온지논총 2』, 온지학회, 1996, p.114에서 재인용 함.

따라서 농암의 산수유상은 興 이외의 어떠한 실용도 그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즉 농암은 산수를 論理的 행위의 규범이나 종교적 신성성을 내재한 영적 존재나 혹은 학문적 진리의 구현체 등으로 결코 인식하지 않고 오직 興이라는 주관적 정서를 환기하는 매개체로 의식할 따름이다. (중략) 龔巖의 山水遊賞은 세속적 욕망과 이욕의 집착과 근심을 벗어나 物外에 뜻을 부쳐 遺世獨立의 뜻이 있음으로 漫興忘機의 세속적인 삶을 초탈하여 이상적인 山水之樂에 대한 동경의 실현이라는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중략) 어부가에 묘사된 자연의 세계는 상상속에 내재하는 이상향으로서 초월적 경향이 강한 이상주의적 계열에 포함된다고 하겠다.³⁴⁾

즉 龔巖의 귀거래는 ‘黨爭에 의한 明哲保身’이 아니라 致仕客의 閑寂으로 인한 것이었기 때문에 귀거래를 한 이후 농암은 官界를 잊고 산수에 몰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³⁵⁾

반면 고산의 산수 인식은 퇴계나 농암과는 다른 차이점을 갖고 있다. 이는 고산이 산수와 접하게 된 동기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앞서 보았듯이 고산의 산수 은거는 학문적 완성을 위해 은거했던 퇴계나, 농암의 치사에 의한 귀향과는 달리 현실세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불가피 하게 선택된 것이다.

고산은 85세의 장수를 누렸지만 타협할 줄 모르는 강직한 성격으로 평생 동안 여러 번의 귀양생활을 겪어야 했으며, 항상 많은 정적들 틈에서 고통을 겪었다. 고산의 유배기간을 보면, 이이첨 등을 통박하다가 경원과 기장에 유배된 8년 간의 귀양살이를 비롯해, 병자호란 때 임금에게 문안하지 않는 것과 徵召에 불응한 일로 영덕에 유배당한 것이 2년, 효종의 승하 후 송시열과의 치열한 예송논쟁으로 삼수, 광양에 유배당한 것이 8년으로 모두 18년이나 된다.

이런 이유로 고산에게 있어 현실적인 삶에서의 산수은거와 사회와의 역학관계는 녹록하지 않다. 퇴계나 율곡과는 달리 고산의 시조에서는 산수에 은거하고자 하는 동경과 사회에 나아가고자 하는 이념이 팽팽한 긴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34) 손오규, 앞의 책, pp.401~402.

35) 정영문, 「농암의 문학에 나타난 자연관」, 『운지논총 2』, 운지학회, 1996, p.117.

보리밥 찢는 물을 알마초 머근 後에
 바싹긋 몹그의 슬크지 노니노라
 그 나쁜 너나쁜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라 <漫興 2>

江山이 도타흔들 내 分으로 누엇나냐
 님군 恩惠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프리 갑고자 햏야도 헉을 일이 업세라 <漫興 6>

<漫興 2>에서는 보리밥 찢나물을 알맞게 먹고 물가에 노니는 것이 자신의 삶이라고 했다. 이러한 생활은 분명 벼슬살이와 대립적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漫興 6>에서는 이렇게 강산에 노니는 것도 자신의 뜻에 따라 결정된 것이 아니라 임금님의 은혜로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漫興 6>의 終章은 정치 현실에 나아가서 이상을 펴보려는 자신의 심정을 임금님이 시키는 일이 없기 때문에 펴보지 못한다고 역설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현실세계에 대한 미련을 표현하고 있다. 山水指向意識과 現實指向意識이 서로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어부사시사에서도 보여진다.

석양(夕陽)이 빗겨시니 그만햏야 도라가자
 돌 디여라 돌 디여라
 안류명화(岸柳汀花)는 고비고비 새롭고야
 지국충(至躬兪) 지국충(至躬兪) 어스와 (於思臥)
 삼공(三公)을 불리소냐 만스(萬事)를 생각햏라 <漁父四時詞 春 6>

여기에서 ‘三公’, ‘萬事’ 등은 설명 할 필요도 없이 정치적 현실세계를 나타내는 관용적인 어구이다. 애써 ‘三公’도 부럽지 않고 ‘萬事’를 잊겠다고 노래하지만 우리는 역설적으로 이 속에서 강한 현실에의 동경을 엿볼 수 있다.

<어부사시사> 연구로부터 사대부 시가 전반의 자연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었던 최진원은 고산이 자연에 들어서도 현실세계를 부정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

이념과 동경의 세계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이조 양반에 있어서는 이율배반적 모순이 아니다. 그러나 어느 하나가 되지 못하고 우왕좌왕 한다면 고민이 없을 수 없다.(중략) 이렇다면 ‘머도록 더우 좋다’가 말 뿐이지 실제에 있어서는 현실을 멀리 할 수 없다. 무심은 표방에만 그쳤고, 따라서 좌절은 풀어질 수 없다. 현실을 멀리하고자 할수록 이념에 부딪쳐 더욱 절박해 질 뿐이다. 좌절은 현실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 한 풀어질 수 없는데, 그는 실제에 있어서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³⁶⁾

더 나아가 류근안은 고산이 단지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출사와 은둔으로 점철된 그의 생애가 보여주듯 그는 순수한 자연인이 아닌 적극적인 현실 참여인이었다고 말한다.

자연과 합일을 이루어 즐거움을 만끽하면서도 그의 지향세계는 바로 현실이었던 것이다. 심지어 자신이 바라는 최고의 이상향의 세계였던 아름다운 자연속에서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여도 부자·군신 관계를 잊을 수가 없다고 했다. 따라서 자연속에 파묻혀 자연을 노래하였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실과 함께 하지는 못하는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관념적인 읊조림에 지나지 않았다. 즉 평생 나라와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 관심을 가졌고, 비록 세상을 떠나 자연에 있어도 완전히 세상을 잊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³⁷⁾

반면 김종렬은 고산의 생애 중 산수은거의 기간이 보통사람들에 비해 상당히 길었던 것에 주목하면서 고산이 산수에 은거했던 것은 현실적인 패배감, 소외의식 따위의 외적 동기 이전에, 내적 동기인 은거생활을 통한 산수와의 깊은 교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바라본다.

孤山이 그의 半生을 山水에 묻혀서 독특한 自己存在를 實現시켰는데 그것 自體

36) 최진원, 『국문학과 자연』,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77, pp.41~42.

37) 류근안, 「고산시가에 나타난 현실인식 연구」, 『어문논집』28, 중앙어문학회, 2000, p.207.

가 普遍的 人間 存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순리가 아니었다. 당시의 時代的 狀況이 비록 江湖歌道를 외치고 그것이 士大夫의 高踏으로 통했었지만 虛名을 위한 僞善이거나 체면을 위한 한갓 관습적이었을 경우가 많았다. 특히 孤山과 같이 儒家的 理念에 투철했던 사람들의 存在 형태로서는 적합지 못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히 小數의 士大夫들의 경우에는 그것이 可能했다. 이들 중 孤山의 경우는 단순한 賞自然의 江湖歌道와는 차원이 다른 “存在에의 적극적 決斷” 이었다.³⁸⁾

고산의 파란만장했던 삶 만큼이나 고산의 산수인식을 둘러싼 해석도 다양하다. 또한 위의 논의는 각각의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진다.

직언이라는 죄 값으로 받게 된 20여 년의 유배생활. 사대부로서 경국제민의 이념을 지녔던 고산은 현실에 대한 관심을 거둘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이상은 현실세계에서 좌절의 늪에 빠져야 했다. 그리하여 그는 산수에 모든 것을 의지할 수 밖에 없었다. 그가 모함과 질시로 관계에서 물러나야 했을 때 그를 받아 준 공간은 산수였다. 그는 산수 공간에 의지해 상처 입은 마음과 정신을 치료하고 보상을 받았다. 현실의 공간이 번뇌와 좌절의 공간이었다면 산수는 그 상처 입은 마음을 치료하는 공간이었던 것이다. 孤山의 시를 考究해 볼 때 그의 시조 75首에 나타나는 전반적인 특색은 산수를 노래하되 그 속에 끊임없는 現實指向 意識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점은 앞서 살핀 농암의 <어부단가>와 <어부사시사>를 비교해 볼 때 한결 뚜렷하게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점 들은 고산에게 산수공간이 현실세계로부터의 도피처요 휴식처는 될 수 있었으나 농암처럼 진정한 안식처는 되지 못했음을 알게 해준다. 순수한 산수의 세계는 정신적 고향을 잃은 피폐한 영혼의 일시적인 안식처가 되기도 했고 구제처가 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고산은 은거생활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산수를 단순히 현실에서의 좌절감을 위로받는 단계에 머물고 말았는가? 그렇다고는 볼 수 없다.

고산을 일컬어, 자연을 ‘유미적 형상’으로 인식했던 작가로 분류한 손오규의 해석은 위 두 논의를 아우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8) 김종렬, 「산수문학의 본체론적 해석」, 『어문학』통권 44·45호, 한국어문학회, 1984. p.65.

고산이 산수에 묻혀 산수생활의 즐거움을 느끼기 前까지 자연경물이란 어떠한 의미도 가치도 가지지 않은 하나의 자연물에 불과하였다. 이것은 관리로서 고산이 지닌 가치체계에 비추어 볼 때 아무런 소용이 없는 자연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山水間에 은둔하여 이상생활을 실현하게 되자 그 생활환경으로서의 자연은 새로운 의미를 지닌 존재로 인식되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 곧 無用의 有用이며 無爲의 자연인 것이다. 그래서 고산은 산수경물을 더욱 사랑하고 점점 자연에 몰입하게 된다.³⁹⁾

즉 고산은 산수은거를 통해 산수생활의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고 이를 통해 산수경물 자체의 속성과 본래적 모습의 아름다움을 인식하게 되면서 산수를 유미적 형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경지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고산으로 하여금, 인생의 많은 굴곡과 혼란 속에서도 끝까지 산수와의 합일을 추구하고 대자연의 이법 속에서 현실을 초극하고자 하는 근원적인 힘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산수은거를 통해 새롭게 인식하게 된 산수의 아름다움과 이상적인 세계로서의 산수공간은 고산으로 하여금 진정한 자연인이 되고자 추구하게 된다. 前節에서도 살펴보았지만 고산에게 있어 귀거래의 시작은 당쟁하의 도피라는 외적 요인이 작용을 했지만 은거생활을 실현하면서 그는 ‘도피자’가 아닌 현실을 초극하는 완전한 자연인으로서의 모습을 찾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외적 동기로 인해 주어진 은둔 생활은 고산으로 하여금 애초의 동기를 무시해도 좋을 만큼 은거 생활을 통해 산수가 지닌 위대한 정신적 가치를 찾아내기에 이르게 한 것이다. 「五友歌」와 같은 작품이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하겠다.

고존 뜨스 일로 뛰며서 수이 디고

풀은 어이호야 프르는 듯 누르느니

아마도 변티 아닐손 바회뿐인가 호노라

<五友歌, 石>

고산은 바위에서 불변성의 가치를 찾았다.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이내 소멸하는

39) 손오규, 앞의 책, p410.

가변성을 갖는 꽃과 풀을 들어 대비의 수법을 쓰면서 바위의 굳은 의지와 절개를 표현하고 있다. 외부의 환경에 따라 쉽게 변해버리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 꽃과 풀에 대비해 변하지 않는 속성을 지닌 산수경물인 바위에서 이상세계를 찾고, 변화하지 않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굳은 절개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산은 어떤 과정을 거쳐 산수에 대해 이러한 관점을 취하게 되는가? 다음장에서 그 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Ⅲ.山水와 空間

한 작가의 작품을 고찰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적용하여 분류할 수 있다. 작품의 내용이 새롭게 변화되는 시점을 중심으로 하여 구분할 수도 있고 생애의 변환기에 따른 분류도 가능하다. 또한 작가가 살았던 시대의 정치적 상황에 따른 분류도 가능하다. 고산의 산수 인식과 관련해서 박을수는 작품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⁴⁰⁾

- <遣懷謠> , <雨後謠 >- 경 원 -무오 32세
- <山中新曲> -금채동 -임오 56세
- <山中續新曲> -금채동 -을유 59세
- <漁父四時詞> -부용동 -신묘 65세
- <夢天謠> -고 산 -임진 66세

반면 이종구는 작품의 내용과 창작지역을 중심으로 4단계로 구분해서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⁴¹⁾

구분	작품내용	창작지역	창작시기	작품명
1기	思君思親 ·時事	유배지	32세(1618)	<遣懷謠>, <雨後謠>
2기	林泉閑興	금채동	56세(1642)	<山中新曲>, <山中續新曲>
3기	林泉閑興	보길도	65세(1651)	<漁父四時詞>
4기	時事	고 산	66세(1652)	<夢天謠>

40) 朴乙洙, 『한국 시조 대사전 상·하』, 亞細亞 문화사, 1991, p.134.

41) 이종구, 「고산윤선도의 작가의식 고찰」,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1993, p.22.

필자는 孤山 윤선도의 산수인식을 전기적 시점에서 고찰하되 산수공간의 의미 변화에 주목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필자가 고산의 산수인식을 고찰함에 있어 공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까닭에서다.

국문학에서의 산수는 강호나 산림, 그리고 강해 등등 여러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명칭의 사용은 대상의 다름에서 비롯되기 보다는 사용된 배경이나 상황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자연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기도 한데, 산수는 흔히 사회 또는 현실과는 상대적인 의미를 띠고 사용된다. 이는 인공의 힘이 가미되지 않은 공간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학에서의 산수는 단순히 하늘과 땅, 나무와 풀, 바위 등 무생물만을 지칭하고 있지는 않다. ‘산수를 노래한다’, ‘산수를 즐긴다’ 라는 말은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를 떠나 독립적인 공간에 대한 사유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문학에서의 산수공간은 다양한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이 의미가 존재함으로 인해 산수 문학에서 산수라는 대상은 흡수되고, 수용 가능한 대상으로서 觀照者에게 부각되고, 산수는 단순한 대상물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비로소 인간은 山水美의 향유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출사와 유배로 이어지는 윤선도의 경우, 산수는 단순히 바라보면서 느끼는 대상은 아니었다. 그는 산수라는 실제 공간에서 은거 또는 은둔의 형태로 생활을 영위했고 따라서 그 공간이 주는 의미는 자신의 처한 상황이나 입장, 그리고 세월이 더해지면서 당연히 변모하게 된다. 필자는 이런 이유로 산수공간에 대한 다양한 층위의 의미를 중심으로 고산의 산수인식 변모 양상을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그의 나이 30세에 당대 정치 흐름에 항거하는 <丙辰疏>를 올려 8년 간의 유배생활을 겪게 되면서 산수가 현실적인 유배공간으로 존재하는 시기의 산수인식을 살펴 보고, 실제 작품 속에서 그의 심정이 어떻게 토로 되었는지, 그리고 이때 최초로 만나게 되는 산수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다. 이 시기에 지어진 <遣懷謠> 5수와 <雨後謠> 1수를 통해 孤山의 초기 산수관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인조반정으로 인해 유배에서 풀려나게 되고 이후 출사와 은둔이 교차되는 파란만장한 시기이며 그가 귀거래를 감행하게 되는 직접적 원인이 된 丙子胡亂이 일어났던 시기다. 이 시기는 본격적으로 강호 은사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시기로서 <山中新曲> 19수와 <山中續新曲> 3수를 통해 산수공간의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 시기는 산수에 은거하고자 하는 마음과 정치현실에 나아가 경국제민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식이 팽팽히 대립하는 갈등기이기도 한데 이 시기의 산수공간에 대한 그의 인식은 현실에서 다친 마음을 위로 받고 보상받는 보상의 공간으로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孤山の 나이 60대 중반 이후로 그의 대표작인 <漁父四時詞>가 지어진 시기로서 산수에 은거하면서 그의 산수관이 완전히 성립되는 시기이며 더 나아가 산수에서 삶의 가치를 찾게 되는, 物我一體의 경지까지 도달하게 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즉 이 시기의 산수는 天人合一을 추구하는 공간인 것이다.

이렇게 시기별로 나누어 孤山과 산수공간과의 만남을 살펴보는 것은, 孤山の 시조 작품 속에서 시대적 상황과 그가 처한 현실을 엿볼 수 있을 뿐더러, 인간으로서의 고산의 면모와 사대부로서의 면모, 그리고 나이에 따라 생에 대한 통찰력이 한층 깊어지는 한 시인의 변모를 함께 고찰함으로써 애초의 목적인 산수인식을 고찰하는데 깊이를 더하고자 함이다.

1. 隱居의 流配生活

孤山の 출생과 성장기부터 <丙辰疏>로 인하여 慶源과 機張에서 도합 8년 간 유배 생활을 겪었던 시기, 고산에게 산수는 유배공간으로서 존재했다. 孤山の 경우 <丙辰疏> 이전의 시기는 사대부 집안의 자제로 자라나면서 당시 유학자들에게 본분이고 이상으로 여겨지던 충과 효를 실현하기 위해 관직생활을 계속해 왔고 이것이 바로 孤山이 산수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던 이유이기도 했다. 그러나

<丙辰疏>로 인하여 관직을 박탈당하고 유배를 가게 되면서 산수와 만남의 계기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유학자로서의 본분과 자신의 처지 사이에서 심리적인 갈등을 겪는 모습이 작품 곳곳에서 드러나긴 하지만 산수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나 애착을 느끼진 않는 듯하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산수은거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었기 보다는 현실에서의 좌절과 현실과의 단절이 그의 마음속에서 번뇌를 일으키면서 작품 속에 그리움으로 형상화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다음은 孤山이 慶源 유배 1년 후 즈음에 지은 시조 작품이다.

슬프나 즐거오나 울타 흐나 외다 흐나
내 몸의 희을 일만 담고 단글 뿐이언뎡
그 받기 너나쁜 일이야 분별홀 줄 이시라

내 일 망녕된 줄을 내라 흐야 모를 손가
이 마음 어리기도 님 위헌 타시로쇠
아미 아미리 날리도 님이 헤여 보쇼셔

楸城 鎮胡樓 밧기 우리 네는 더 시내야
므슴 호리라 晝夜의 흐르는다
님 向헌 내 뜯을 조차 그칠 뉘를 모로는다

되헌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어버이 그린 뜯은 만코만코 하고하고
어되셔 외기러기논 울고울고 가느니

어버이 그릴 줄을 처엄붓터 아란마는
님군 向헌 뜯도 하늘히 삼겨시니
眞實로 님군을 니즈면 귀 不孝인가 너기와

<遣懷謠>

<遣懷謠>라는 제목이 보여주듯이 이 작품은 유배생활의 서글픈 정회를 노래하고 있다. 그런데 유배생활의 서글픔 가운데 이 시는 사대부로서의 고산의 면모를 엿 볼 수 있게 한다. <遣懷謠 1>의 초장을 보면 복잡한 정치 현실과 그에 따라 영향을 받는 자신을 표현하고, 중, 종장에서는 주변이 상황이 어떠한 자신은 유자로서 정도를 걷겠다는 의지가 드러난다. <遣懷謠 3>은 임금을 그리워 하는 마음인 思君을, <遣懷謠 4>는 부모에 대한 그리움인 思親을 노래하고 있다. 이것은 당시 孤山이 비록 유배된 몸이기는 하지만 대대로 벼슬을 지내며 살아 온 집안의 사대부답게 충과 효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사실 고산이 유자로서 이때까지는 강한 현실 지향적 의지를 갖고 있음은 <병진소>를 올린 것에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당시 권력을 손아귀에 쥐고 있던 이이첨에서 반기를 든다는 것은 자신은 물론 집안 전체가 화를 당하게 됨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그러나 충정의 마음으로 자신을 바쳐 어지러운 사회를 바로 잡고자 분연히 일어섰던 것이다. 사실 관찰사인 아버지 밑에서 자신은 이미 진사시에 합격한 상태였고, 조상은 대대로 내려오는 해남의 많은 땅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사회는 내우외환으로 혼란스럽고 궁핍하였다 하더라도 그의 장래는 비교적 유망하였다. 하지만 그의 성격이 부조리한 현실과는 타협하지 못하게 하였던 것이다.⁴²⁾ 그러니 병진소로 인한 고초는 고산에게는 커다란 충격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호남 명문 대가의 후예로서 고생이라고는 전혀 모르고 자랐을, 오직 청운의 꿈을 키워왔을 청년 유생이 절박한 상황에 처하여 느꼈을 심정이 작품을 통해 잘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⁴³⁾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이때까지는 관직 생활을 통해 유학자로서의 충과 효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마음과 그럴 수 없는 자신의 처지 사이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산수경물에 대한 언급은 ‘시내’, ‘뢰’, ‘물’, ‘외기러기’ 등이 있으나 이는 산수경물 그 자체에 대한 완상이기보다는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기 위한 매개체로

42) 류근안, 앞의 책, p.206.

43) 김종렬, 앞의 책, p.72.

서만 사용된 것이다. 즉 위의 작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시기에는 현실 참여에 대한 좌절과, 사회공간과의 단절로 인한 갈등을 노출하고 있다고 보아야겠다. 다음의 <雨後謠> 발문과 작품도 혼탁한 현실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준다.

“어떤 사람이 그 당시의 재상이 잘못을 뉘우쳤다고 전했다. 이때에 마침 곳은비도 맑끔히 개었다. 나는 ‘그의 뉘우침이 진실로 이 비가 개고 이 구름의 견힘이 앞넷물의 다시 맑아짐과 같다면 우리가 왜 어질게 되지 못하겠는가’ 하고 드디어 우리말로 노래를 지어 불렀다”⁴⁴⁾

그준 비 개단말가 흐르던 구름 견단말가
압 내회 기픈 소히 다 몯앗다 흐느순다
眞實로 몯디은 몯아시면 갠긴 시서 오리라 <雨後謠>

위의 시조 마지막 부분의 ‘갠긴 시서 오리라’는 지금의 정치 현실이 바르게 되는 날, 그 때 비로소 현실의 사회정치에 다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혼탁한 정치현실로 지금까지 좌절되고 고립된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다고 보여진다.

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처음 유배 당한 1년 간은 산수를 노래하기 보다는 자신의 결백한 의지, 임금에 대한 충성, 부모에 대한 그리움으로 일관되어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정치적 패배와 좌절을 맛보았지만 현실세계를 완전히 떠나 완전히 산수에 몸 담고자 하는 마음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즉 작품을 통해서 본 이 시기의 孤山의 심정은 평탄했던 자신의 일생이 유배로 인해 절박한 상황으로 떨어졌던 충격과 갈등을 토로하고 있으며 그럼으로 이 시기의 산수공간은 현실에 존재하는 유배공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공간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4) 이형대 외, 『국역 고산유고』, 소명출판, 2004, p.337에서 참조하였음.

有人傳道 時宰改過于斯時夜 宿雨適霽 余曰 彼之改過也 狗能如斯雨之晴 如斯雲之捲 如斯前川之還清則 吾儕敢 不歸仁乎 遂作俚語永言之, 『孤山遺稿』 卷六 下, p.17.

그런데 慶源에서 機張으로 이배되어 생활했던 기간, 연보에 의하면 고산은 이 기간 동안 삭직 당한 부친의 喪을 당하는 비통함을 겪었다는 것과 오직 독서와 산수를 벗하며 소요하는 것으로 일과를 삼았다고 되어 있고, 이렇다 할 작품도 기록도 없다.⁴⁵⁾ 유배지에서의 孤山의 생활은 모든 것으로부터 구속되어진 상태였고 절망적인 것이었으나 오직 산수만이 늘 그의 곁에서 그를 받아들여 주었을 것이다. 한마디로 산수생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유배지라는 주어진 조건 속에서 산수와 접하는 삶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 시기 산수 은거는 이후 고산의 일생에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보여진다. 이후 고산은 유배에서 풀려나 관직생활을 하다가 스스로 산수에 은거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처럼 스스로 산수은거를 선택한 배경에는 유배기에 접한 산수에서의 생활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애초 고산은 유배를 통해 산수 은거를 실현하게 되지만, 그의 심중에는 경국제민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절박하고도 중요한 사명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무의식적으로는 유배기간 동안 접한 산수에 서서히 동화되어 산수를 새롭게 인식하고 영향을 받았던 시기라 여겨지는 것이다. 이는 앞서 유배 이전에 가졌던 산수에 대한 애호와 산수은거에 대한 동경과도 다분히 다른 것인데, 앞에 가졌던 생각들이 구체적 경험이 없는 가운데 갖고 있는 다분히 관념적이고 피상적인 생각이었다면 이 시기의 산수는 고산이 실제로 산수간에서 경험하고 침잠하면서 인식하게 된 산수인 까닭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 시기야 말로 고산이 산수은거를 새롭게 인식하는 시기였다고 본다. 고산 스스로는 의식하지 못했을 지도 모르지만 이후 유배생활에서 풀려나 관직을 거치는 동안 산수은거의 즐거움을 새롭게 느낄 수 있었을 것이며, 이는 이후 스스로 산수를 찾아 은거를 선택하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보여지는 것이다. 8년 간의 유배에서 풀려난 고산이, 잠시 동안의 출사 후 스스로 은둔생활에 들어간 사실도 이러한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45) 원용문, 『윤선도 문학연구』, 국학자료원, 1989, p.29.

2. 理念 挫折과 報償

8년 간의 유배생활에서 풀려난 고산 윤선도는 다시 5년을 은둔 한 후, 비로소 출사를 하여 여러 관직을 두루 거치게 된다. 그러나 丙子胡亂 후, 또 다시 유배를 당한 후에는 스스로 금쇄동으로 돌아가는 귀거래를 감행, 다시 산수은거의 삶을 실행한다. 산수와 재회하는 기간이기도 한데, 이때 쓰여진 것이 <山中新曲>이다. 그러나 이 시기까지만 해도 고산의 마음 속에서는 경국제민의 이상과 산수에 은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팽팽한 갈등과 대립을 이루고 있었다. 다음은 당시의 생활을 잘 표현한 <山中新曲> 중 <漫興>의 일부분이다.

산수간 바회 아래 뛰 집을 짓노라 하니
그 물론 늙들은 웃는다 혼다마는
어리고 하암의 뿔터는 내 분인가호노라 <漫興 1>

<山中新曲>의 첫머리에 나오는 작품으로 ‘山水間에 뛰 집을 짓고서’ 산수에서 생활하는 것이야 말로 자기의 분수에 맞는다는 은둔사상을 잘 드러낸 작품이다. 치열한 당파싸움과 丙子胡亂을 치르고 난 후의 참담한 심정과 사회현실에 실망한 나머지 깊은 골 金鎖洞에 찾아 들어 때 묻은 세상의 모든 일을 잊고 산수간에 작은 집을 짓고 산수와 더불어 유유자적하는 작자의 심경을, 헤아릴 줄 모르는 남들은 비웃을 것이지만 순진한 농촌사람의 마음으로서 오�히려 그것이 자기 본분이라고 여긴 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노래의 깊은 곳에는 현실 사회와 자신이 품고 있는 고매한 이상이 용납되지 못하고 괴리현상을 양출함으로 해서 인간세계에서 좌절을 느꼈을 때, 현철의 도를 밟아 진세의 명리를 버리고 산수에 은거해서 정신적 평화를 구하면서 산수를 상대로 하여 살겠다는 은일적사상이 그대로 표출되어 있다고 하겠다.⁴⁶⁾ 이는 산수에서 정신적 평화를 구하면서 산수

46) 문영오, 『고산문학 평론』, 태학사, 2001, p.162.

와 더불어 살아가겠다는 산수 친화사상의 발로인 셈이다.

그런데 이 작품을 현실과 이상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대비하여 본다면 ‘현실적인 것’은 도피 사상을 표방한 은거생활이고 ‘이상적인 것은’ 정계에 복귀하여 유교적 이상을 실현해 보자는 것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상적인 것’을 부정하고 ‘현실적인 것’을 긍정하게 된다.⁴⁷⁾ 즉 지금 고산은 현실에 처해있는 은둔생활을 긍정하고 정계로 나아가는 것은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흥 6>에 이르게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江山이 묘타흔들 내分으로 누엇나나
님군 恩惠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프리 갑고자 햏야도 헉을 일이 업세라 <漫興 6>

초장과 중장에서는 임금의 은혜를 기리고 있다. 유자로서 어찌면 당연한 일 일 것이다. 산수간에 은거하여 묻혀 사는 것도 임금의 은혜로 승화시키고 있다. 임금을 향했던 고산의 충성은 진정에서 솟어나 어느 때 어디서라도 변치 않는 향심으로 표백된 것이라 읽힐 만도 하다.⁴⁸⁾ 그러나 종장을 보면 <漫興 1>과는 반대로 ‘현실적인 것’을 부정하고 ‘이상적인 것’을 긍정하는 것이다. 즉 강산에 은거하게 된 것이 임금의 은혜인데, 그 임금의 은혜를 갚고자 하나 맡기지 않으니 할 수가 없다고, 정계에 진출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역설적으로 표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위 시를 통해 고산은 여전히 정계에 복귀하고자 하는 미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수은거의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항상 現實指向 의식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漫興> 여섯 首에서는 ‘산수세계’와 ‘現實세계’로 대립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丙辰疏>로 인한 유배에서 현실세계와의 갈등을 겪고 난 후 고산은 산수공간을 새롭게 인식하고 애뜻함이 발로되기 시작했으며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산수 공간과

47) 원용문, 앞의 책, p.519.

48) 문영오, 앞의 책, p.166.

한층 밀착된 상태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리밥 찻노물을 알마초 머근 後후에

바훗긋 몃그의 슬크지 노니노라

그 나쁜 너나쁜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라 <漫興 2>

초장에서는 소박하고 절도 있는 생활을, 중장에서는 산수를 벗하여 즐겁게 지내는 생활을, 종장에서는 그 밖에 다른 일이야 부러워할 것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소박한 것>, <절도 있는 것>, <즐거운 것>, <부드러운 것>, <담박한 것>, <고요한 것> 등 여러 가지 미적 감각을 추출 해 낼 수 있다. 이 작품에서의 ‘현실적인 것’은 부귀 영화를 멀리하고 검소하게 생활한다는 것과, 은거생활을 통해 그 즐거움을 마음껏 누린다는 것이다. 또 ‘이상적인 것’ 역시도 이러한 현실적 생활에 만족하며 앞으로도 그렇게 지내야겠다는 생각으로서 전자와 후자가 갈등 없이 어우러지고 있다.⁴⁹⁾

곧 고산은 산수에 은거함으로서 복잡한 현실로부터 벗어나 안식을 취하고 위안을 얻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만흥 여섯 수에는 ‘여남은 일들’, ‘물가에서 실컷 노는 일’, ‘인간세상’, ‘자연 속의 퇴’, ‘인간만사’, ‘다툼이 없는 강산’ 등이 연속적으로 비교된다. 비교된다는 것은 정치 현실을 완전히 떠나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다.⁵⁰⁾ 확실히 이 시기 고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정계로 복귀하고자 하는 미련이 남아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초기의 유배기와는 달리 고산의 마음에는 산수 은거의 즐거움이 들어서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생활은 더 나아가 고산으로 하여금 산수를 유미적 형상으로 인식하게 되는 데 까지 이른다. 그 대표적인 예를 산수경물을 벗으로 여기며 노래한 <五友歌>에서 볼 수 있다.

<五友歌>는 <山中新曲>의 마지막에 있는 작품으로 孤山이 56세때 盈德 유배에서 돌아와 金鎖洞의 아름다운 산수속에 파묻혀 살면서 산수경물에 대한 친화

49) 원용문, 앞의 책, p.110.

50) 박길남, 「고산 윤선도 시조의 공간적 추이과 그 의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21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3, p.36.

와 관조의 솔직한 심정을 읊은 작품이다. <五友歌>에 이르러 고산은 산수경물에 대한 애호 정신을 바탕으로 산수경물에 내재한 미적 고유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작품으로 형상화 시키고 있다.⁵¹⁾ 다음은 <五友歌>의 몇 부분이다.

내 버디 몇치나 흐니 水石과 松竹이라
東山에 돌 오르니 그 더욱 반갑고야
두어라 이 다스 밧기 또 더흐야 무엇흐리 <五友歌 1>

구름 빗치 조타흐나 검기롤 즈로흐다
벼람소리 몹다흐나 그칠적이 하노매라
조코도 그출 뉘 업기는 틀썬인가 흐노라 <五友歌 2>

속세를 떠나 산수에 은거하여 복잡한 현실의 모든 물정을 다 잊어버리려는 작자의 허심탄회한 심정이 솔직하게 노출되어 있다고 하겠다. 고산은 <五友歌>에서 수석과 송죽 그리고 달을 자신의 벗으로 상정하고 그 이유를 말하고 있다. 위에서 보면 검기를 자주해서 싫은 구름, 그칠 적이 많아서 사귄 수가 없다는 바람, 그에 대비해 영원성을 간직한 물을 통해 생활태도의 규범을 제시하고 있는데 뒤에 이어지는 바위와 송죽 역시 영원성과 절개라는 측면에서 고산의 벗으로 상정된다. 외부의 환경에 쉽게 변질해 버리는 인간의 속성에 대한 회의와 함께 산수경물이 갖고 있는 영원성에서 이상 세계를 찾고 있는 고산의 면모가 드러난다. 조운제는 <五友歌>의 제 3수를 두고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더욱이 제 3수의 돌 노래에 이르러서는 저 딱딱한 무각무정한 것도 여기서는 따뜻한 생명 있는 정열을 가지고 우리의 품안에 안겨오는 듯하다. 실로 자연은 고산으로 하여금 그 미를 훨씬 더 발양하고 사람은 고산으로 인하여 자연을 바르게 이해하고 훨씬 더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다.⁵²⁾

51) 손오규, 앞의 책, p.413.

52) 문영오, 앞의 책, p.127에서 재인용하였음.

이와 같이 <五友歌>에서는 산수가 간직한 미를 발견함으로서 산수공간은 이전의 어둡고 희망없는 좌절의 시대와 대비되는 곳으로 설정되고 그 공간에서 孤山 자신의 이상향인 五友를 벗어나며 살아가고자 하는 작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 작품 속에는 현실에서 겪은 갈등과 좌절을 더 이상 외적인 것으로 돌리지 않고 자기 내면에서 찾으려는 의지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⁵³⁾

孤山은 금쇄동을 근거지로 하여 산수공간을 자신의 삶의 이상적 공간으로 삼았다. 계속되는 현실의 풍파를 견뎌내던 그에게 은거생활은 비로소 그에게 삶의 희열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었던 것이다. 따라서 孤山은 이미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산수를 단순한 현실적 공간으로 바라보는데 그치지 않고 산수와 친화된 상태에서 산수와 벗어나며 조화로운 삶을 꾀하기에 이른다.

3. 天人合一의 理想

甫吉島에서의 은둔생활은 자연과 한층 더 일치된 강호은사의 생활을 보여준다. 현실에서의 풍파를 겪고 출사와 은거를 거듭했던 고산은 이 시기에 이르면 조선 조 선비의 대부분이 이상으로 삼았던 산수은거를 통해 天人合一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효종의 즉위로 인해 孤山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이전에 비해 더욱 더 안정되고 주위 상황이 평화로워져서인지 이 시기의 작품에서는 서정성과 함께 짜임새 있는 구성력도 보여진다. 孤山이 65세에 어옹의 생활과 흥취를 짜임새 있게 엮은 40수의 장편노래, <漁父四時詞>에서 그러한 점들을 들여다 볼 수 있다.

<漁父四時詞>는 春, 夏, 秋, 冬 각각 10장으로 된 4편의 구성으로 되어 있다. 특히 각 편은 앞부분 1~5장과 뒷부분 6~10장으로 구분되면서 전후가 유기적으로 대응되는 질서를 취하고 있다. 또 이 4편의 내용은 각각 어느 하루에 행해졌

53) 문영오, 위의 책, p.125.

던 4일 간의 일과로 축소된다. 그런가하면 전편에 담긴 敍時畧景은 일년 사계절을 순환적 표현으로 확대하고 있어 이의 작품구도는 축소와 확대의 양면을 겸한 의미있는 짜임으로 분석된다. 이런 점에서 <漁父四時詞>는 孤山의 작시능력을 새삼 느끼게 하는 우수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다음은 그 일부이다.

우느거시 벽구기가 프른거시 벼들습가
 이어라 이어라
 어촌(漁村) 두어집이 닛속의 나락들락
 지국총(至菊叢) 지국총(至菊叢) 어스와 (於思臥)
 말가흔 기픈 소희은 간고기 뛰노는다 <漁父四時詞, 春4>

석양(夕陽)이 도타마는 황혼(黃昏)이 갓 갑거다
 비 세여라 비세여라
 바희 우희에 구븐 길 솔 아래 빗겨있다
 지국총(至菊叢) 지국총(至菊叢) 어스와 (於思臥)
 벽슈 잉성이 곧곧이 들리는다 <漁父四時詞, 夏7>

전체 40수 중 위에 인용된 2수는 산수생활의 흥취를 노래하였고 서정성이 특히 돋보이는 작품이다. 아름다운 산수에 몰입하여 유유자적하는 생활을 노래하였으며 소재 역시 서경적인 것을 사용하여 흥취와 즐거움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자신이 머물고 있는 甫吉島의 주위환경을 마치 정원을 꾸미듯이 개성에 맞도록 조경해 놓고서 작품을 통하여 주변의 경관을 그림 그리듯이 묘사하고 있는 부분은 그가 얼마나 산수에 몰입해 있으며 또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지를 엿볼 수 있는 단서가 된다. 다음의 <漁父四時詞> 몇 부분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드러난다.

고은 벌티 췌안년대 물결리 기름길다 <春, 5>

압희는 萬頃琉璃 뒤희는 千疊玉山 <春, 4>
 千山 萬山이 錦繡로다 <秋, 4>
 압개에 안개 짓고 뒷 피희 희 비천다 <春, 1>
 江村 온갓 고지 먼 비치 더욱 도타 <春, 1>
 몰래 우희 그물 넣고 뚝 미터 누어 쉬자<夏, 8>
 丹崖 翠壁이 畫屏 곧터 돌렀는더 <冬, 7>

위의 작품을 통해 甫吉島에서 의도했던 생활을 추측할 수 있다.
 이렇게 산수에 머물면서 산수경물의 아름다움에 도취된 상태는 드디어 物我
 一體의 경지를 이루어 작품 속에 다음과 같이 드러난다.

긴 날이 저뜨는줄 興의 미쳐 모르도다 <夏, 6>
 취흔 거시 興이로다 <秋, 4>
 나쁜 興이 無窮하니 갈길 흘 니졌단다 <春, 9>

이 시기 산수은거의 생활은 매우 평안하고 화려하여 그 극치에 달한 느낌인데
 당시에 지어졌던 한시 작품에서도 그러한 점은 잘 나타나 있다.

金鎖洞中花正開 금쇄동 안에 꽃은 피어나고
 水晶岩下水如雷 수정암 아래의 물, 우레와 같구나
 幽人誰謂身無事 은자는 일없다 뉘 말하는가?
 竹杖芒鞋日往來 죽장에 짚신으로 매일같이 오간다네⁵⁴⁾ <偶吟>

이처럼 이 시기의 孤山의 산수생활은 고통과 혼란으로부터의 해방, 즉 마음의
 혼돈없는 평정을 나타내고 있다. 孤山에게 있어서 산수공간은 이전의 시기에서는
 복잡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단순한 도피처로서의 의미에서 더 나아가서는 산

54) 이형대 외, 앞의 책, p.198.

수경물을 완상하며 산수와의 친화를 꾀하였다면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산수공간이 자아를 실현하는 장이자 物我一體의 경지를 넘나드는 공간으로 까지 승화시키기에 이른다고 하겠다. 그러나 어부사사사에도 부분적으로 현실세계를 완전히 잊지 못하는 표현들이 드러나 있다.

三公을 불리소냐 萬事를 생각하라 <春, 6>

鳳凰樓 渺然하니 淸光을 늘을 줄고 <秋, 7>

머흔 구름 恨티마라 세상을 ㄹ리온다 <冬, 8>

波浪聲을 厭티마라 塵喧을 막는또다 <冬, 8>

여전히 보이는 현실세계에 대한 관심. 이 점은 뒤에서 세밀하게 논하겠거니와, 결론적으로 이 시기 산수공간의 특징은 전과는 달리 산수공간이 이상향으로 설정되어 천인합일의 경지를 추구하는 공간으로서 자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V. 詩歌와 山水 形象化

1. 遣懷謠와 이념

첫 유배지에서서의 孤山의 작품인 <遣懷謠>와 <雨後謠>에는 현실을 지향하는 고산의 의식이 뚜렷이 확인된다, 이들 시조에는 자신의 신념과 충성심, 그리고 思親의 情 등의 현실세계를 지향하는 의식이 절실한 자기표현의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슬프나 즐거오나 올타흐나 외다흐나
내몸의 희을 일만 단고 단글 뿐이언덩
그 받기 너나쁜 일이야 분별홀 줄 이시라 <遣懷謠 1>

내일 망녕 된 줄을 내라흐야 모롤손가
이 막음 어리기도 님 위흔 타시로쇠
아미 아미리 닐러도 님이 헤여 보쇼셔 <遣懷謠 2>

楸城鎮 胡樓 밧기 우리네는 더 시내야
므슴 호리라晝夜夜야의 흐르는다
님向 향한 내 뜯을 조차 그칠 뉘를 모로는다 <遣懷謠 3>

되흔 길고길고 물은 멀고멀고
어버이 그린 뜯은 만코만코 하고하고
어되셔 외기러기는 울고울고 가느니 <遣懷謠 4>

어버이 그릴 줄을 처엄붓터 아란마는

님군 向향 뜯도 하늘히 삼겨시니

眞眞實實로 님군을 니즈면 괴 不불孝효근가 너기봐 <遺懷謠 5>

<遺懷謠>는 시의 대상이 이념을 표현함으로써 철저히 주체 중심으로 짜여진다. 주체 중심의 시란 시의 대상이 표현 주체를 표현하는 매개물로 등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 시의 제1聯과 2聯, 그리고 마지막 5聯을 보면 시의 대상인 객체는 時調 속에서 찾아볼 수 없고 표현주체인 ‘나’만이 時調의 전면에 등장하여 시적 자아의 심경을 솔직하고도 절실하게 노래하고 있다.⁵⁵⁾

3聯에서는 시의 대상으로 ‘시내’가, 4聯에서는 ‘피호’, ‘물’, ‘외기러기’ 등의 산수경물이 등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물은 그 자체가 개별성을 가진 실체로 노래된 것이 아니라 詩的 자아의 심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절실하게 드러내기 위한 매개물로 쓰여 自我 中心的 態度를 나타내고 있다. 自我 中心的 태도로 시의 대상을 수용할 경우 詩의 대상인 산수경물은 그 자체가 개별적 존재로서 개별적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고 산수 일반이 가질 수 있는 보편적 의미를 갖게 되며 산수경물은 그 자체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실체로서가 아니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으로 추상화되어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聯의 ‘시내’는 ‘우러네는’과 ‘晝夜에 흐르는데’의 항상성으로 임금을 향한 간절하고 영원한 뜻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이때의 ‘시내’는 반드시 이 時調에 나오는 ‘추성진 호루 밧기’ 있는 그 개별적이고 특정한 ‘시내’가 아니라도 무방하다. 즉 소리 내면서 끊임없이 흐르는 시내라면 어느 곳에 있던 어떠한 시내이든 아무 상관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 時調의 ‘시내’는 개별적 존재로 개별적인 의미를 가진 실체가 아니라 시내라는 일반적 의미로 추상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 시조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질서란 주로 儒敎의 이념에 입각한 것이다. 孤山이 儒敎사상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삶도 완전한 질서 위에서 영위하고자 했던 전형적인 儒士임을 보여주는데 그는 詩의 대상인 산수경물을 매개로하여 儒家의 도덕적 이념을 노래하고 있다. 이는 산수경물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감정이입으로 말미암은 효과일 뿐 별

55) 조태흠, 「윤선도 시조 연구」, 부산대학교석사논문, 1985, p.21.

다른 의미를 갖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遺懷謠>의 주제 역시도 산수경물이 아닌 儒敎 사회의 개인과 국가의 윤리 덕목인 ‘忠’이다. 즉 1聯에서 ‘내 몸의 희을 일’만 닦고 닦을 뿐이라 하여 신념에 가득 찬 전형적인 儒士의 모습을 보여준다. 2聯에서는 자신이 한 일로 인하여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왔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금을 위한 일이었으며 그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임금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 달라고 간청하는 孤山의 심정이 토로되어 있다. 3聯에서는 ‘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영원하고 간절함을 ‘시내’를 빌어서 표현하고 있다. 이 1·2·3聯을 <丙辰疏>와 관련시켜 이해할 때 그 의미가 더욱 명료해진다. 1聯의 ‘내 몸의 희을 일’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이다. 즉 <丙辰疏>를 올린 것은 자신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인 것이다. 2聯은 그런 ‘내 일’이 망령 된 일인 줄 알면서 한 것은 오로지 ‘님’을 위한 탓이며 3聯에서 이러한 ‘님’을 위한 마음은 영원한 것이라고 노래하여 ‘내 일’을 ‘임금을 위한 일’이라 하여 자신의 모든 행동을 오로지 ‘忠’에 바탕하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다. 4聯에서의 ‘길고 긴 산’, ‘멀고 먼 물’, ‘울고 울고 가는 외기러기’는 思親의 情이 끊이지 않고 울어마지 않는 孤山 자신의 외로운 모습을 대변한다. 孤山 尹善道는 8세에 그의 숙부 惟幾 앞으로 양자를 가서 22세에 母父人 具氏, 23세에 본생비 安淑人의 喪을 당하였고 26세(1612, 광해 4)때 本生考 惟深의 喪을 당했다. 그러나 그가 慶源으로 유배되었을 때는 부친 惟幾만이 남아있었다. 그러나 생부모, 양부모 가운데서 오직 한 분 생존해있던 惟幾는 <丙辰疏>로 인해 관찰사에서 파직되었고 孤山이 경남 機張으로 移配되었을 때 세상을 떠났다. 仁祖反正으로 유배에서 풀려나자마자 고산이 양부모의 선산으로 달려간 사실들은 孤山의 효심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다. 효성이 지극한 孤山이 부친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이첨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린 사실은 불효의 일단이 될 수도 있다. 孤山의 이 사건으로 해서 父가 삭직된 것은 불효가 극에 달한 느낌마저 든다. 그러나 儒家에서 군주에 대한 불충은 부모에 대한 불효로 받아 들여졌던 통념을 감안할 때 이는 불효가 될 수 없다. 忠孝一致의 儒家的 思想은 어느 한 곳으로만 치우칠 수 없는 것이다.⁵⁶⁾ 즉

56) 문영오, 앞의 책, p.224.

孤山 개인에게 있어 孝는 대의로 보면 不忠이다. 따라서 孤山에게 있어서 君主에 대한 忠誠과 憂國의 情은 또한 孝중의 孝로 여겨졌던 것이다. 이러한 것을 그는 5聯에서 ‘아버이 그리는 정’을 ‘임금 향한 뜻’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여기서 그는 ‘忠’은 바로 ‘孝’라 하였다. 즉 나라를 걱정하고 사랑했기에 <丙辰疏>를 올렸고 그 결과 부모에게 누를 끼치고 자신에게도 불행이 닥쳐왔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진정한 孝이며 忠이라고 생각하는 의연한 儒士로서의 孤山의 意氣를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遣懷謠> 5首의 일관된 흐름은 바로 ‘忠’이다. 이러한 주제는 孤山의 사대부적인 ‘經世指向’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遣懷謠>를 쓸 당시 孤山의 마음속에는 아직까지도 ‘山水指向’ 의식은 싹트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遣懷謠>에서는 ‘經世指向’의식에서 비롯된 儒敎的 이념을 직접적으로 노래하고 있다.

다음 <雨後謠>도 <遣懷謠>와 마찬가지로 慶源에 유배되었을 때 만들어진 작품이다.

구름 비 개단말가 흐리던 구름 건단말가
 압 내회 기픈소히 다 몯앗다 흐느슨다
 眞實로 몯디온 몯아시면 갠긴 시서 오리라 <雨後謠>

이 작품에서는 산수를 觀念化하여 다분히 主觀的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쓰인 言語는 단순한 산수경물의 속성이나 山水美의 수용에 그친 것이 아니라 言語의 정서적 기능과 의미의 상징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雨後謠>를 쓰게 된 동기를 밝히고 있는 서문을 보면 <雨後謠>의 상징성은 뚜렷해진다. 다시 그 서문을 보자.

“어떤 사람이 그 당시의 재상이 잘못을 뉘우쳤다고 전했다. 이때에 마침 굶은비도 말끔히 개었다. 나는 ‘그의 뉘우침이 진실로 이 비가 개고 이 구름의 걷힘이 앞날의 다시 맑아짐과 같다면 우리가 왜 어질게 되지 못하겠는가’ 하고 드디어 우

리말로 노래를 지어 불렀다”⁵⁷⁾

위의 진술에서 볼 수 있는 바 孤山은 ‘재상이 잘못을 고친 것(原觀念)’을 ‘오던 비가 그친 것 같고 구름이 걷힌 것 같고 앞 시내가 맑아 오는 것 같다(補助觀念)’고하였다. 이렇게 볼 때 이 詩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1 : 1 대응을 이루고 있는 寓意的 手法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긋은비’ ‘흐리던 구름’ ‘흐려진 물’은 모두 혼탁한 정치풍토와 사회풍조를 원관념으로 전제한 것이다. 이와 같이 孤山은 氣象語를 사용하여 정치적 실현을 그의 작품 속에 나타내고 있는데 이와 같은 비유 방법으로 논의 될 수 있는 것으로<山中新曲>중의 朝霧謠 · 夏雨謠 · 日暮謠 등을 들 수 있다.⁵⁸⁾

우선<朝霧謠>를 살펴 보면

月出山이 높더니마는 피운 거시 안개로다

天王 第一 峯을 一時에 ㄹ리와다

두어라 희퍼던 휘면 안개 아니 거드라

<朝霧謠>

이 詩도 일견 단순한 서술로 생각할 수 있지만 ‘안개’에 대해 ‘밟다’ 등의 감정을 쓴 것으로 보아 비유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月出山 天王峰, 안개, 해’ 등은 역시 일종의 寓意로 풀이할 수 있다. 月出山 天王峰은 신성화 된 ‘임금의 은혜와 덕택’으로 그 원관념을 추적할 수 있고 ‘안개’는 그러한 ‘은택의 발양을 막는 무리들’로, ‘해’는 ‘그러한 장애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통치력’ 등으로 그 속뜻을 추적 해 볼 수 있다.⁵⁹⁾

<夏雨謠> 중에 보이는 ‘장마 비’, ‘밤’ 등의 용어도 인간의 활동을 막고 있는 외적 조건으로 어떤 면에서 ‘정치혼탁과 不公正性’을 寓意한 것으로 볼 수 있고

57) 이형대 외, 『국역 고산유고』, 소명출판, 2004, p.337에서 참조하였음.

有人傳道 時宰改過于斯時夜 宿雨適霽 余曰 彼之改過也 狗能如斯雨之晴 如斯雲之捲 如斯前川之還清則 吾儕敢 不歸仁乎 遂作俚語永言之, 『孤山遺稿』卷六下, p.17.

58) 황두환, 「고산 윤선도 시가의 자연관 고찰」, 연세대학교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2, p.52.

59) 鄭尙均, 「尹善道の 詩歌 研究」, 『孤山研究』, 孤山研究會, 1987, p.310.

‘소떡이기’, ‘쟁기연장 다스리기’는 외적 상황이 바뀌었을 때 발휘 될 수 있는 ‘자신의 준비와 수련’ 등을 그 원관념으로 전제 할 수 있을 것이다.⁶⁰⁾

이처럼 孤山의 초기작품에는 산수은거와는 전혀 무관하게 사회적 관심만을 토로하는 현실에 대한 감정상태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이는 먼저 그의 初期詩들이 정치적 패배로 인하여 유배지에 창작되었다는 점. 둘째 孤山이 그 전에 한 번도 정치적으로 불우한 상황을 겪지 않은 상태에서 제작된 시였다는 점. 셋째 젊은 시절의 패기가 시속에 그대로 용해되어 感情處理가 直線的이었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⁶¹⁾

이런 이유로 이 시기에 보여지는 초기 시들은 대부분 이념을 노래하고 있다.

2. 漫興과 서정

금쇄동에 은둔하던 시기, 孤山은 산수에 은거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의 일부는 항상 현실에 가 있었다. 이 시기 孤山의 의식 속에는 부패된 정치 현실로부터 떠나 산수에 은거하여 살겠다는 ‘山水指向’ 의식과 현실에 나아가 자기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려는 ‘經世指向’ 의식이 공존하게 된다. 孤山의 이러한 현실에 대한 두 가지 지향성이 뚜렷이 나타나는 작품은 중기 이후의 작품들이다.

금쇄동기에 집필 된 <漫興>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山水間 바회 아래 뛰집을 짓노라하니
그 모른놈들은 운논다 혼다마는
어리고 하암의 뜻의는 내分인가 흐노라 <漫興, 1>

60) 尹成根, 『尹善道 作品集』, 螢雪出版社 1977, p.17.

61) 황두환, 앞의 논문, p.53.

보리밥 찻는 물을 알마초 머근 後에
바윗긋 몹그의 슬크지 노니노라
그 나쁜 너나쁜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라 <漫興, 2>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피흘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흐라
말슴도 우움도 아녀도 몰내 도하 흐노라 <漫興, 3>

누고셔三公도곤 낫다 흐더니 萬乘이 이만흐라
이제로 헤어든 巢父許由 | 낙뫼더라
아마도 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업세라 <漫興, 4>

내성이 게으르더니 하늘히 아르실샤
人間萬事랄 혼 일도 아니 맛더
다만당 드토 리 업슨 江山을 덕히라 흐시도다 <漫興, 5>

江山이 묘타흔들 내分으로 누엇나냐
남군 恩惠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프리 갑고자 흐야도 험을 일이 업세라 <漫興, 6>

孤山은 星山 縣監에서 파직 당한 뒤 정치 현실에 회의를 품고 현실을 떠나 산수간에 은거하며 살고자 하는 ‘山水指向’ 의식을 품게 되었다. 하지만 現實世界에 나아가 經國濟民하려는 ‘經世指向’ 의식을 버릴 수 없었다. 이 두 가지 지향성이 서로 갈등하는 양면적 모습이 <漫興>에 뚜렷이 드러난다.

곧 <漫興 1>에서는 혼란한 정치생활에 마음을 끊고 인간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深山幽谷에 들어가 산수에 茅屋을 짓고 때 묻지 않은 산수와 더불어 생을 영위하는 것이 자기의 분수라고 했다. 하지만 이 시의 이면에는 현실사회와 자신이 품고 있는 고매한 이상 사이의 乖離現象으로 인하여 느끼는 인간적인 좌

절 의식이 나타나 있다. 이러한 좌절 의식을 孤山은 산수와 함께 隱逸하면서 살겠다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다.

그리고 <漫興 2>에서는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고 물가에 노니는 것이 자신의 삶이라고 했다. 이러한 생활은 분명 벼슬살이와 대립적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그 밖의 판 일 곧 孤山이 그렇게 연연해하던 현실의 명리나 벼슬은 ‘그나쁜 너나쁜 일’로 묶어서 부러워 할 리가 있겠느냐고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애써 현실적인 욕망을 잊고 산수에 은둔하려고 하나 산수와의 완전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산수라는 공간은 현실의 좌절 의식을 상기 시키는 수단이 되고 만다.

<漫興 3>에서는 산수은거 생활에 완전히 동화된 작가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곧 세상에서 가장 그리운 녀 보다 반가움이 더한 산(山水)을 앞에 두고 좋아하는 작가의 모습이 그것이다.

그리고 <漫興 4>에서는 深山窮谷에 깊이 파묻혀 一丘一壑을 상대로 삶을 영위해 보니 이 세상에서의 벼슬의 총수인 상국의 지위도 천자의 자리도 부럽지 않다고 하는데 이것은 작가가 산수에 대한 절실한 사랑과 山水美의 발견 이후에 온 소산인 것이다.

<漫興 5>에서는 자기에게 벼슬을 맡기지 않은 이유가 자신의 성품이 게으른 탓이라고 하고, 다투는 일을 부지런히 할 수 있어야 지킬 수 있는 인간만사는 자신의 소관이 아니며 애써 남과 다투지 않아도 지킬 수 있는 강산이 자기에게 적당하다고 고백하고 있다. 이러한 고백은 하늘이 알고 맡겼다고 하는 天命思想에 바탕을 두고 있다.

<漫興 6>에서는 이렇게 강산에 노니는 것도 자신의 뜻에 따라 결정된 것이 아니라, 다 임금님의 은혜로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종장의 이러한 의식 가운데는 벼슬에 나아가 임금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즉 孤山의 심중에는 벼슬에 나아가 경국제민의 이념을 실현시키고 싶은 욕구가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漫興> 여섯 首는 林泉閑興의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지만 강한 현실

지향의식을 표방하는 매개물로 읽혀지기도 한다. 이렇게 볼 때 <漫興>에서도 山水指向意識과 現實指向意識이 서로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漫興>의 여섯首는 각각 개별적인 작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통일된 하나의 제목 아래 여섯 수가 묶여 있고 짜임 자체도 통일된 흐름을 보여준다. 즉 첫째 수에서 셋째 수까지는 산수에 은거하여 산수와 더불어 노닐며 얻는 조화의 기쁨이 주로 표출된다. 그러다가 넷째 수로 넘어 오면서 그 기쁨이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 三公, 萬乘으로서의 기쁨과 비교되면서 한번 확인되고 나아가 다툼으로 가득찬 부정적 현실이 의식되면서 다시 더 확인되다가 마지막 여섯째 수에 이르러 마침내 그 기쁨이 사회의식으로 전이되어 사회의 이상(王)과 화합하고자 하는 소망의 표출로 귀결된다.

이와 같이 <漫興> 여섯 首가 통일된 흐름으로 이어져 있는 連時調임을 고려할 때 마지막 6聯이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된다. 왜냐하면 1聯부터 5聯까지 山水 세계를 긍정하고 現實세계를 부정해 오던 일관된 자세가 ‘아무리 갑고자 흐야도 희을 일이 업세라’고 하여 완전히 역전되기 때문이다. 즉 지금까지 긍정되었던 산수은거의 생활은 모두 임금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 이제 그 임금님의 은혜를 아무리 갚으려 해도 시키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⁶²⁾ 임금에게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現實世界로 나아가 임금의 일을 돕는 것, 다시 말하면 정치 현실에 나아가 經國濟民하는 것이다. 따라서 6聯의 제3行 ‘아무리 갑고자 흐야도 희을 일이 업세라’는 孤山의 강한 ‘경제지향’ 의식의 역설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漫興> 여섯 首는 그가 복잡한 현실을 피하여 산수간에 은거하면서 쓴 작품으로 초기 작품에 비해 산수지향의식이 드러나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現實指向 의식이 꿈틀거리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漫興 여섯 首에서는 ‘산수은거’와 ‘現實세계’로 대립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보아진다.

<五友歌>도 <山中新曲>의 所産으로 金鎖洞에 은거하면서 창작한 것이다. 여기서의 산수경물은 있는 대로의 경물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관념화하여 작가의 주관에 의해 추상적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는 <漫興>과 동일하다. 그러나 오우

62) 황두환, 앞의 논문, p.58.

가에 이르면 孤山은 산수경물을 美的인 대상으로만 수용한 것이 아니라 敎訓的 의미로 받아 들이기도 했다. 이는 산수를 다만 바라보고 즐기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몰입하여 흥취를 느끼는 단계를 넘어 산수 아름다움을 倫理的 意味로까지 발전 시켰다는 뜻이다. 산수경물은 인간의 일상으로 조화되면서 인간에게 일종의 깨달음을 주는 존재로까지 승화되고 그림으로써 인격을 획득하게 된다. 孤山이 이처럼 산수경물을 관념화한 이유 중에는 世人들에게 받은 인간적인 좌절을 풀기 위한 측면도 있다. 崔珍源은 「韓國古典詩歌의 形象性」에서 孤山의 인간적 좌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논했다.

그가 甫吉島에 든 것은 궁지에 몰린 마음을 自然 속에서 풀고자 하는데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그의 一丘一壑의 뜻이거니와 그 一丘一壑의 뜻은 동서남북에 갈 데가 없는 골목에서 찾아낸 마지막의 길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 마지막의 길마저 용허하지 않았다. 현실은 너무나도 냉혹하였다. 그 냉혹도 유독 孤山에게만 그러하였다. 그는 1년 간의 유배를 치루고서도 죄에서 완전히 풀려나지 못하고 결국은 供辭를 올려 불문한 까닭과 甫吉島의 입도 경위를 변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그는 “浮世의 狹이 또한 釣船의 속에까지도 드는가”라고 하여 냉혹한 현실에 몸부림쳤다. 현실에 몸서리 치고 현실을 개탄할 때 그의 궁지에 몰린 마음은 自然을 찾았고 그 自然조차도 허용되지도 않았을 때 갈기갈기 찢겨졌거니와 갈기갈기 찢겨진 마음은 곧 인간성의 좌절이다.⁶³⁾

이러한 인간성의 좌절은 “단순히 自然에 의탁됨으로써 풀어질 수 없으며 그것은 바로 산수를 관념화함으로써 가능하다”⁶⁴⁾라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산수를 觀念化한다는 것은 객관적 존재로서의 산수를 순수 정신세계로 초연 시키는 것이다. 孤山은 <五友歌>에서 이러한 산수의 관념화를 산수경물 속에서 인간의 윤리를 발견해 나가는 것으로, 또 도덕적인 요소를 찾아내어 본 받으려는 것으로 표출시켰다. 즉 산수경물을 단순한 물질로 보지 않고 정신적 인격체로 보았으며 산

63) 최진원, 「韓國古典詩歌의 形象性」, 『大東文化研究叢書』 VIII,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 研究 1988, pp.103~06.

64) 최진원, 위의 책, p.107.

수경물이 갖고 있는 외형미에 인간의 德性和 聖人の 도를 결부시켜서 산수경물을 靜坐存心의 장소로 생각하였다.⁶⁵⁾ 그래서 그는 그의 마음을 ‘水·石·松·竹·月’에 이입시켜서 水에서는 그치지 않는 不斷을, 石에서는 不變을, 松에서는 不屈의 오연한 자세를, 竹에서는 不染과 높은 절개를, 月에서는 無言을 취해 수신의 교훈으로 삼고자했던 것이다. 이러한 산수의 양상들이 구체적으로 작품 속에 어떻게 露呈되는지 고찰해보자.

내 버디 몇치나흐니 水石과 松竹이라
 東山의 들 오르니 그 더욱 반갑고야
 두어라 이 다숫 밧기 또 더흐야 머엇흐리 <序>

구름밧치 조타 흐나 검기를 즈로흐다
 비람소리 몹다 흐나 그칠 적이 하노매라
 조코도 그출 뉘 업기는 물뿐인가흐노라 <水>

고즌 므스 일로 꺾며셔 쉬이디고
 풀은 어이흐야 프르논 듯 누르느니
 아마도 변티 아닐손 바회뿐인가 흐노라 <石>

더우면 곳 꺾고 치우면 님 디거늘
 술아 너는 언디 눈서리를 모르는다
 九泉의 불회 고든 줄을 글로 흐야 아노라 <松>

나모도 아닌 거시 풀도 아닌 거시
 곳기는 뉘 시기며 속은 어이 뷘연는다
 더리코 四時에 프르니 그를 도하 흐노라 <竹>

65) 安秉台, 「尹孤山の 오우가에 나타난 自然觀」, 『孤山研究』, 孤山研究會, 1987, p.217.

자근거시 노피 떠서 萬物을 다 비취니
 밤등의 光明이 너만흔니 또 잇느냐
 보고도 말 아니 험니 내 벌인가 흐노라 <月>

孤山은 <五友歌>에서 水·石·松·竹·月 오직 이 다섯에게 신뢰를 느끼며 윤리적 교훈을 얻는다. 이 다섯은 모두가 변함이 없는 恒常的 존재들이다. 산수경물이 인간 규범으로 들어오면 산수경물은 인간에 용해되고 기여하게 된다. 그가 변하지 않는 산수에 참다운 미를 느낀 것은 그의 정치 현실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꽃의 순간성과 풀잎의 일회성은 그가 회구하는 벗이 될 수 없었고 반려도 될 수 없었다. 그는 변하지 않는 산수에서 참다운 미를 발견한 것이다.⁶⁶⁾

<五友歌 2>에서는 초장 ‘빛’과 ‘검기’, 중장의 ‘바람’과 ‘뭍다’는 의미 상대구를 이룬다. 물을 만드는 요소가 되는 구름과 바람을 같이 예를 들면서 물을 더 좋아한다고 연결시킨 것은 경탄할 만한 기교이다. 동격의 물건에서의 결점이 다른 것에서 장점으로 파악될 때 그 가치는 倍加되는 것이다. 초장과 중장에서 ‘조타흐나’, ‘뭍다흐나’의 ‘흐나’를 반복함으로써 구름빛이 변화해가는 상태를 뚜렷하게 표현해 주고 있다. 또 한 이는 바람소리의 다양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도 되는 것이다. 여기서 孤山이 바람소리를 ‘뭍다흐나’라고 표현하여 비범한 솜씨로 산수경물의 현상을 표출하고 있는 심미감은 경탄을 자아낸다. 우리 언어가 지닌 다양성을 최고조로 발휘하고 있는 듯하여 이 작품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 것 같게 해 준다.

이밖에도 <五友歌 3>에서는 對句와 시간 단축의 효과를 나타내는 표현에 이어 餘音의 효과를 주고 있다. ‘고즌’과 ‘풀은’, ‘므스일로’와 ‘어이흐야’는 서로 對句요, ‘튀면서 쉬이디고’는 ‘튀면서 쉬이디고’ 보다 시간상 단축의 효과를 나타내고 ‘푸르듯 누르나니’도 ‘푸르다가 누르나니’ 보다 짧은 시간적 표현이다. 사물이 마치 눈앞에 실제로 보이는 듯한 실감을 느낄 수 있도록 묘사했다. 이는 詩語를 완

66) 조윤제, 『국문학 개설』, 탐구당, 1973, p.411.

전혀 표현하지 않고 여음을 남겨 놓아 맛을 돋우는 효과를 잘 나타낸다. 이러한 뛰어난 孤山의 시어 선택이나 조사는 평민적 자각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며 돈독하고 부드러운 그의 인간미가 무르익어 표출된 것이다.

이렇듯 <五友歌>에서는 산수경물에 대한 치밀한 관찰과 묘사를 통해 孤山의 산수에 갖는 사랑을 알 수 있으며, 산수경물에 인격을 부여하고 덕성을 찾고자 했다. 이는 산수경물을 관조하는 가운데 교훈을 찾은 것으로 산수가 인간의 규범 속으로 들어와 인간에게 기여하는 것으로 파악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五友歌>의 산수경물에서 추상화 된 관념은 儒士의 윤리였음이 밝혀졌다. 孤山은 <五友歌>에서 산수경물과 도덕과의 일치점을 발견하여 산수의 참뜻을 읊어내었으니 이 <五友歌>는 도덕적 이상적인 山水觀의 소산이라 하겠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五友歌>는 산수경물에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산수와 인간의 조화를 이룬 山水時調이다.

3. 漁父四時詞와 서경

부용동을 발견하고 정착하게 된 사연은 전술한 바와 같거니와 고산은 부용동에서 <漁父四時詞>를 지었는데, 각 계절에 따라 바뀌는 산수의 아름다움과 흥겨운 생활상을 그린 작품으로 <孤山遺稿>에 실려 전한다.

<어부가>계 시조는 원래 고려 때부터 전하는 작자 미상의 한시로 되어 있는 어부가를 농암이 개산한 <어부가>가 시초인데, 고산은 이를 다시 40수로 재창작한 것이다. 그러나 고산의 어부사시사는 한자·한시귀를 어의와 어음에 상응하는 우리말로 바꾸고, 형식면에서도 후렴구를 사용, 고려속요의 전통을 계승하여 리듬을 고양시키고 있다.

<漁父四時詞>는 孤山이 말년에 쓴 작품이다. 말년의 작품답게 표현의 세련성과 현실에 대한 감정처리가 순화되었다. 이 시기의 그는 芙蓉洞에 들어가 정자를

깃고 연못을 파 그 안에 蓮을 심고 또한 자제들을 가르치는 등 강호의 생활을 누렸다. 이런 상황에서 창작된 <漁父四時詞>는 初期詩에 비해서 산수지향 의식을 많이 노래하고 있다. 이것은 그만큼 孤山의 생활이 산수공간에 익숙해져 있으며 또한 말년의 현실에 대한 달관자적 태도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漁父四時詞>에도 역시 군데군데 산수공간이 현실의 좌절을 풀어내는 욕구 해소의 장소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漁父四時詞>에 나타난 산수의 二元性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項에서는 이러한 二元性을 중심으로 <漁父四時詞>에 나타난 산수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純粹對象으로서의 산수이다. 이러한 詩의 주제는 작가의 어떤 사상이나 감정을 나타낸 관념이 아니라 실제 작품 속에서 형상화 된 산수경관이 보여 주는 한편의 서경 그 자체다. 다음 작품에서 이러한 면을 찾아 볼 수 있다.

압개에 안개 짓고 될 피희 희 비천다
 비 떠라 비 떠라
 밤물은 거의 디고 날물이 미러온다
 至匆忽 至匆忽 於思臥
 江村 온갓 고지 먼 빗치 더욱도타 <漁父四時詞, 春 1>

이 時調는 春詞의 序曲으로 앞개에 걸힌 안개와 뒷산의 아침 햇살이 비치는 봄 날 이른 새벽의 정경을 순수한 우리말로써 꾸밈없이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서 ‘압개’, ‘안개’, ‘될피’, ‘희’, ‘밤물’, ‘날물’, ‘곶’ 등의 산수경물들은 마치 부분과 부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전체를 이루듯이 각각이 모여 한편의 풍경을 이루어 敍景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것들은 서로 성질을 달리하는 요소들인데도 그 자체로서 개별적이면서 독특한 의미를 가진 실체로 형상화 되어 각각 그 독립성을 가지며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敍景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즉 ‘압개에 안개’는 그 자체로 개별적이고 독특한 의미를 가지면서 전체인 ‘봄날의 정경’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처럼 對象中心的 태도에서의 산수경물은 그 나름대로 개별적 의미를 지니며

원래 산수경물의 意味 그대로 파악된다. 그리고 마지막 行 ‘먼빛치 더욱도타’는 산수경관의 경치를 遠視하고 있으며 그럼으로써 산수에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다. 멀리서 산수를 일단 아름답게 느끼고 보면 인간은 거기에 도취된다. 이렇게 도취된 상태가 物我一體의 경지로 인간과 산수는 한덩어리가 되고 인간은 산수의 일부로 용해된다. 이러한 상태를 관조의 세계라 할 때 인간의 존재는 부정된다. 또한 孤山은 산수공간을 하나의 단순한 공간으로 파악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이상을 그곳에서 발견하려고 하였다. 그가 추구한 이상세계는 바로 天人合一의 세계였다. 따라서 그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완전한 질서와 조화의 세계인 산수와 합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심없는 고요한 명상과 산수에 동화하고자 하는 어떤 경건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믿었다. 이러한 자세가 <漁父四時詞>에 배어있는 것이다.

다음 작품 <春詞 4>에서는 산수생활에 동화 된 마음을 잘 그려내고 있다.

우는 거시 벽구기가 프른 거시 버들습가
이어라 이어라

漁村 두어 집이 닛 속의 나락들락

至匆忽 至匆忽 於思臥

말가흔 기픈 소희 온간 고기 뛰노는다 <漁父四時詞, 春 4>

鄭寅普는 이 작품을 평하여 “物外閑人の 優遊하는 心境을 흔적없이 나타냈다”⁶⁷⁾라고 했다. 이 말에 대해 崔珍源은 “흔적없이 나타냄이란 物에 卽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超然한 境地일 것이다”⁶⁸⁾라고 설파하고 초연의 경지를 여백으로 간주했다. 여백이란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흔적 없이 나타낸 것’이 바로 여백이란 것이다. 여기서 등장하는 산수와 경물들, 즉 뼈꾸기 울음 소리, 푸른 버들, 숲, 안개 속에 가린 어촌의 정경, 맑은 물에 뛰노는 물고기 등은 그 나름대로 개별적 의미를 가지며 작품 내에서 전체와 조

67) 鄭寅普, 『松江과國文學』, 『齋園國學散藁』, 教學社, 1958, p.64.

68) 최진원, 『漁翁』-漁父四時詞의 경우, 『성대논문』 제5집, 1960, p.67.

화를 이루며 용해되어 있다. 산수속의 한 객체인 뱀꾸기 등의 경물들은 하나하나 개별적인 존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봄날의 화창한 정경과 閑適 속에 용해되어 조화를 이룬다. 즉 이 작품은 부분을 통하여 산수 전체를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전체는 표면에 나타나 있지 않고 다만 묘사된 것은 부분 뿐이요, 전체는 物我一體로 超然되어 있다. 이때의 산수는 그 의미가 상징으로 고정되지 않고 다만 원래의 그 상태 그대로 흥을 느끼고 그 속에 작가는 고요히 잠긴다. 이것과 유사한 경지는 다음 작품에서도 볼 수 있다.

년납희 밥싸두고 반찬으란 장만마라
 달 드리라 달 드리라
 靑籊箆은 씨잇노라 綠簑衣 가져오나
 至匆忽 至匆忽 於思臥
 無心흔 白鷗는 내 좃는가 제 좃는가

<漁父四時詞, 夏 2>

여기에서는 산수생활에 함몰하여 반찬을 갖추는 것조차 필요 없이 세속의 제 반사를 잊고 산수 그대로의 소박미를 즐기는 초연한 漁翁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말 그대로 無我之境이며 主客一體가 된 경지이다. 이런 상황에 집착이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무심한 白鷗는 내 좃는가 제 좃는가’라고 가리지 않았다. 백구가 나를 좃던 내가 백구를 좃던 간에 부분적 집착을 벗어나 산수에 젖어든다. 이렇게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超然한 경지가 여백인 것이다.

이처럼 純粹對象으로서의 산수는 작품 속에 표현된 의미 그대로의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대부분 대상인 산수에 몰입된 경지이며 산수와 합일 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번에는 象徵化 된 산수로 살펴본다.

象徵化 된 산수는 작품속에 나타난 산수경물이 그 작품 속에서 원래 의미 그대로 쓰이지 않고 그 속에 작가의 感情이 移入되어 하나의 감정 표현의 매개물이 된다. 곧 산수경물이 산수경물 자체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比喩·象徵·暗示 등의 함축 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漁父四時詞>에서의 상징화 된 산수경물은 주로 孤山의 정치 현실에서의 좌절을 나타낸 것들이다. 그러한 까닭에 거기에는 항상 經國濟民의 의지가 나타나 있다. 이렇게 상징화 된 산수에서는 사물자체에서 느낄 수 있는 흥이 감소되고 산수경물의 의미 자체도 표현의 참신성을 잃고 만다.

夕陽이 빛겨지니 그만 ㅎ야 도라가자
돌 디여라 돌 디여라
岸柳汀花는 고비고비 새롭고야
至匆忽 至匆忽 於思臥
三公을 불리소냐 萬事를 심각하라 <漁父四時詞 春 6>

여기에서 ‘三公’ ‘萬事’ 등은 설명 할 필요도 없이 정치적 현실세계를 나타내는 관용적인 어구이다. 애써 ‘三公’도 부럽지 않고 ‘萬事’를 잊겠다고 노래하지만 우리는 역설적으로 이 속에서 강한 현실에의 동경을 엿볼 수 있다.

湄결이 흐리거든 발을 씻다 엇더히리
이어라 이어라
吳江의 가자 ㅎ니 千年怒濤도 슬플로다
至匆忽 至匆忽 於思臥
楚江의 가자 ㅎ니 魚腹忠魂 날글세라 <漁父四時詞 夏 4>

滄洲吾道를 네브터 날런더라
eke 디여라 단 디여라
七里 여흘 羊皮 옷슨 귀 언더ㅎ니런고
至匆忽 至匆忽 於思臥
三千六百 낙시질은 손 고븐 제 엇디턴고 <漁父四時詞 冬 9>

이 詩에서는 엄자룡 · 강태공 · 굴원 · 오자서를 詩 속에 등장 시켜 그들과 작가가 자신을 동일시하여 벼슬에 대한 취임 없는 지향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위수에서 10년 동안 때를 기다리며 낚시질을 하다가 주문왕을 만나게 된 강태공의 괴롭고 긴 기다림을 ‘손 고븐 제 었더턴고’라고 표현하였고 때를 기다리는 강태공을 역시 산수에 은거하여 때를 기다리며 긴 시간을 보내는 孤山 자신과 동일시했다. 이런 점에서 <漁父四時詞>에서 孤山이 스스로 형상화하고 추구한 ‘漁父’는 삶이 배제된 어부이며 그렇기 때문에 강호에서의 노래는 그의 심리적 양금을 해소하기 위한 정신적인 표방 행위라는 쪽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래서 ‘漁父’ 아닌 ‘假漁翁’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접근해 볼 때 “그가 추구한 ‘어부’는 진정한 생활인으로서의 어부라기 보다는 세월을 낚는 어부임이 드러나는 것이다”⁶⁹⁾ 이때의 강호의 공간적 의미는 허망한 세월을 보내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위에 지적한 <漁父四時詞>의 예들은 孤山의 江湖가 ‘벼슬에서 물러 나온 곳’이거나 ‘맑고 깨끗한 곳으로서의 葛藤이 없고 욕망을 버린 곳’의 장소이다. 그래서 ‘여기’는 ‘모든 것을 초월한 곳, ‘머도록’으로 形象化 되고 있다. 결국 江湖는 벼슬을 버리고 오는 곳이며 따라서 이것은 세속적인 욕망이 벗어난 곳이고 이렇게 봤을 때 <漁父四時詞>에서의 강호는 대부분 벼슬길이나 욕망으로 뒤끓는 세상과 대비되고 있다. 이것은 산수를 순수대상, 즉 산수 그 자체로 보는 것 보다는 현실의 반대 의미로서 산수경물을 形象化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상향으로서의 산수인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漁父四時詞>에서는 거의 대부분 순수대상으로서의 산수를 노래하였고 군데군데 현실의 대립적 의미로서 산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앞서서도 살펴 본 바와 같이 孤山이 산수에 은거하고 있으면서도 마음의 일부는 經國濟民의 현실에 가 있었기 때문이다.

69) 金大幸, 「父四時詞의 外延과 內包」, 『孤山研究』, 孤山研究會, 1987, p.36.

V. 結論

이상에서 윤선도의 山水인식에 대해서 고찰했다. 그 가운데서도 산수공간에 대한 인식의 변모와 時調 작품속의 산수 형상화 양상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이를 위해 출사와 유배 그리고 은둔의 형태로 이어지는 윤선도의 생애와 관련해 윤선도가 산수에 들게 된 동기를 살펴보고 윤선도 산수관은 특성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특히 세월을 더함에 따라 산수공간의 의미가 어떤 변모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지에 주목해서 세 시기로 나누어 산수인식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고찰한 결과들이 구체적으로 시에서는 어떻게 형상화 되고 있는지 <견회요>, <만홍>, <어부사시사>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상의 고찰에 따른 결론을 내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윤선도가 산수에 들게 된 외부적 동기는 정치현실에서의 패배와 이로 인한 좌절이었다. 윤선도가 살았던 시기는 정치풍토가 매우 혼란스러웠다. 윤선도는 그의 나이 30세 때 이이첨을 탄핵하는 상소인 <병진소>를 올렸고, 이로 인해 31세 때 첫 유배를 경험하면서 처음으로 산수와 접하게 된다. 이후 18여 년의 유배 생활이 말해주듯 그는 정치현실에서 숭한 좌절을 겪어야 했고 이는 산수에 은거하게 하는 동기를 마련했다.

둘째, 산수에 들게 된 동기에는 외부적 동기 못지않게 내부적인 동기가 작용했다. 윤선도는 유배를 겪기 이전부터 산수의 아름다움을 인식하고 있었고, 비록 추상적이기는 하나 산수에 은거하고자 하는 뜻을 갖고 있었다. 이는 외부적 동기와 만나면서 구체화 되었고 산수와 접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산수은거의 뜻을 깊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조선조 사대부로서 내면화된 성리학의 천인합일의 사상 또한 내부적 동기의 한 요소로 작용했다.

셋째, 윤선도의 산수공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유배로 인해 산수와의 만남을 갖기 이전에는 산수공간은 단순히 현실의 삶을 영위하는 공간으로 인식되었

다. 산수은거에 대한 뜻이 있었다고는 하나 이 시기까지는 추상적인 단계에 머물렀고, 윤선도의 뜻은 산수은거 보다는 경국제민의 이상을 실현하는 쪽에 쏠려 있었다.

넷째, 첫 유배로부터 시작된 정치적 좌절은 윤선도의 산수인식에 변화를 가져온다. 부조리한 현실에서 슬하게 정치적 패배를 겪어야 했던 좌절감을 윤선도는 산수공간을 통해 정화하고 보상받았다. 현실적인 생활의 공간이었던 산수는 유배와 출사가 되풀이되면서 도피처요, 안식처로 인식되어지고 마침내는 산수공간에서 이상향을 찾아내는 唯美的 형상으로 인식하기에 이른다.

다섯째, 초기시 <遣懷謠>에 나타난 산수의 표현 양상을 보면 山水指向意識은 찾아볼 수 없다. 그 속에 표현된 산수경물은 대부분 經世指向意識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곧 일상적인 산수경물에 儒敎의 충과 효가 결부된 관념으로써 표현되고 있다. 유배지는 친화의 공간이기 보다 현실적 공간으로서 오히려 자신의 지향을 가로막는 斷絶의 空間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섯째, <漫興>에 나타난 산수의 양상은 <遣懷謠>와는 달리 山水指向意識이 나타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산수는 윤선도의 현실적 좌절욕구가 자주 드러난다. 처음 1聯~3聯까지는 산수에서 누리는 기쁨을 노래하다가 4聯에서는 이것들이 사회적 기쁨으로 나타나고 마지막 6聯에서는 이러한 기쁨이 社會意識으로 전이되어 현실적 이상과 화합하고자하는 소망의 표출로 끝을 맺고 있다. 이는 윤선도가 경국제민의 뜻을 충분히 펼치지 못한 가운데 산수에 은거하면서 현실정치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까닭이다.

일곱째, <漁父四時詞>에 나타난 산수의 양상은 앞의 두 시기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漁父의 閑適淸逸한 생활을 읊고 있으며 산수의 표현에 있어서도 작가와 산수가 일체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산수와의 친밀감도 실제 생활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나면서 산수가 이상향으로 그려진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군데군데 現實指向意識이 나타나고 있어 여전히 현실에 대한 미련을 접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윤선도 詩歌에 나타난 산수의 모습은 그의 정치적 환경과 관련을 맺

으면서 조금씩 변모된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초기시 <遣懷謠>나 <雨後謠>에서는 강력한 現實指向欲求가 直敍적으로 드러났으며 <漫興>에서는 현실지향적인 의지와 산수은거에 대한 동경이 대립하면서 갈등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그리고 <漁父四時詞>에 이르면 그의 정치적 안정과 더불어 한편으로는 現實指向意識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달관적이고 초연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덟째, 경국제민의 뜻과 우주적 산수세계와의 조화, 둘 모두를 포기할 수 없었던 점은 윤선도로 하여금 산수은거와 현실참여 사이에서 항상 갈등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갈등 양상은 두 가지가 성리학자인 윤선도의 자아실현 과정에는 필수적인 존재였던 까닭이다. 그러나 윤선도는 宦界에 들 때마다 모함을 받아 경국제민의 이상을 펼 수 없었다. 그 결과 그는 오히려 산수간에 침잠하여 금쇄동과 수정동 사이를 오가며 그 속에서 隱遁者의 생활을 몸소 실천할 수 있었다. 윤선도에게 있어 산수는 때로는 최고의 경지인 物我一體의 경지였으며, 때로는 인간세상과 自我를 격리시켜 주는 훌륭한 장치, 즉 逃避와 隱遁의 공간으로 존재했다. 윤선도는 그러한 산수간에 은거함으로써 세월을 더할수록 산수가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여 언어로써 그 美를 재현 시킨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윤선도에게 산수는 이념 이전의 감성적 실존을 부여한 존재의 場이다. 따라서 윤선도에게 산수는 단지 도피처나 대기소의 공간이기 이전에 그의 이상향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윤선도의 은거는 겉으로 보여지는 양상과는 달리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이상적이었던 셈이다. 윤선도가 산수에서 문학 활동을 한 것은 이러한 그의 산수관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 參 考 文 獻 】

I. 資料

- 朴乙洙 編著, 『한국시조대사전上,下』, 亞細亞文化社, 1991.
윤선도, 『고산유고』, 한국문집총간 91, 민족문화추진회, 1992.
이형대 외 3인 공저, 『국역 고산유고』, 소명출판, 2004.
鄭炳昱 編著, 『시조문학사전』, 신구문화사, 1982.

II. 單行本

- 金大幸, 『時調類型論』, 삼영사, 1984.
이민홍, 『사립과 문학 연구』, 형설출판사, 1985.
文永午, 『孤山 尹善道 研究』, 태학사, 1983.
——, 『孤山 文學 評論』, 태학사, 2001.
朴晟義, 『孤山詩歌』, 정음사, 1960.
박요순, 『한국 고전문학 신자료연구』, 한남대학교출판부, 1992.
孫五圭, 『山水文學研究』,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0.
——, 『산수미학탐구』,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6.
元容文, 『尹善道文學 研究』, 국학자료원, 1989.
——, 『孤山文學 研究』,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88.
尹崑崗, 『孤山歌集』, 서울 正音社, 1948.
尹成根, 『尹善道 作品集』, 螢雪出版社, 1977.
李在秀, 『尹孤山 研究』, 學友社, 1955.

- 張德順, 『韓國 古典文學의 理解』, 一志社, 1973.
- 鄭炳昱, 『한국 고전의 재인식』, 기린원, 1988.
- 趙潤濟, 『國文學概說』, 탐구당, 1973.
- , 『韓國文學史』, 探求堂, 1987.
- 崔珍原, 『국문학과 자연』,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71.
- , 『한국 고전시가의 형성』, 성균관대출판부, 1988.

III. 論文

- 權斗煥, 「尹孤山の 漢詩賦 研究」, 『관악어문논집』 제3집, 1978.
- 金大幸, 「漁父四時詞의 外延과 內包」, 『孤山研究』, 孤山研究會, 1987.
- 金成和, 「고시조에 나타난 江湖歌道」,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74.
- 류근안, 「고산 시가에 나타난 현실인식 연구」, 『어문논집』 28, 중앙어문학회, 2000.
- 민변수, 「조선 전기의 문학관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제1집, 서울대학교국어국문학과, 1976
- 박길남, 「고산 윤선도 시조의 공간적 추이와 그 의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1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3
- 安秉台, 「尹孤山の 오우가에 나타난 自然觀」, 『孤山研究』, 孤山研究會, 1987.
- 李相寶, 「孤山遺稿 解題」, 『한국의 명저』, 玄岩社, 1969.
- 이용숙, 「孤山 尹善道の 詩歌 研究」, 원광대 박사학위논문, 1987.
- 鄭尙均, 「尹善道の 詩歌 研究」, 『孤山研究』, 孤山研究會, 1987.
- 鄭寅普, 「松江과 國文學」, 『簞園國學散藁』, 敎學社, 1955.
- 조규익, 「尹孤山 文學思想 小考」, 『院友論集』 7집 연세대학교, 1979.
- 조동일, 「孤山 研究의 回顧와 展望」, 『孤山연구회제회학술발표회요지』, 1986.
- 조태흠, 「尹善道 時調 研究」, 부산대석사논문, 1985.

정혜진, 「고산문학에 나타난 자연관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1998.

최종열, 「산수문학의 본체론적 해석」, 『어문학 통권』 44·45호, 한국어문학회.
1984.

허남춘, 「士林派 詩歌에 나타난 자연관과 서정」, 『조선조 시가의 존재양상과
미의식』, 반교어문학회편, 보고서, 1999.



<Abstract >

A Study on Yoon Seon-Do's Perception of Landscape and His Poetic Manifestation

Moon, Sun-Ae

Majored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Leading Professor Sohn, O-Gyu

Yoon Seon-Do was a high ranking officer of the Joseon Dynasty, an intellectual and statesman of the day. His later life was not smooth sailing. The rest of his life was either in exile or seclusion. This was the time when he came to find and encapsulate the genuine beauty of landscape in poetic manifestation, which has become an important part of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The study aims to examine the poet's perception of landscape and how it appears in his poetry. First, the study looks over his life seeking the motives for a life sequestered deep into the world of landscape. His life is reviewed in three sequential phases: entering into public life, exile, and seclusion. Secondly, the study looks into how his perception of landscape shapes up in poetic

manifestation.

Yoon Seon-Do initially perceived landscape as a simple and practical space for living. By estranging himself further into the cycle of a secluded life, the meaning of landscape gradually transformed into a space of healing and compensation for his wounds caused by the absurdities of the real world and ideological frustrations. Finally, it is perceived as a utopia nourishing the utmost of beauty.

As a noble gentry, Yoon Seon-Do had the longing for a life of seclusion in landscape. At the same time, he espoused the philosophy of Gyungguk-Jemin(經國濟民), meaning 'State administration to relieve the people's suffering'. The confrontational power of these two elements were matched equally deep inside his mind, often stirred up to collide. Their powers appear in his contradictory life: yearning for landscape, during his service for the Royal Court, but envying for the service while he was living in seclusion. Nevertheless, Yoon Seon-Do was not able to give up his upholding of the Gyungguk-Jemin or the yearning for landscape. He needed all to discipline himself to attain and reach the status of self-realization.

In conclusion, the study brings out the confirmation of his affinity to and depth of understanding about landscape. It also reveals the significant influence of landscape as an essential element to form the poetic world of Yoon Seon-Do.